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하늘을 나는 소년

(The Boy Who Could Fly Without a Motor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김 은 혜

2017年 7月

# 하늘을 나는 소년

(The Boy Who Could Fly Without a Motor·번역논문)




지도교수 박 경 란

김 은 혜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7月

김은혜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원 보   
위 원 김 지 은   
위 원 박 경 란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7年 7月

The Boy Who Could Fly Without a Motor  
하늘을 나는 소년

Eun-Hy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July,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하늘을 나는 소년

테오도르 타일러

김은혜 옮김

## Abstract

주인공인 조나단 제퍼스는 캘리포니아에서 19마일 떨어진 페덤 솔 앤 퍼시폰 리프 부근 클레멘타인 바위섬에 사는 소년이다. 존은 등대지기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인 개 스퍩스와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바위섬에 3년째 살고 있다. 존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소년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놀고 얘기할 친구가 간절히 원한다. 그는 너무 친구를 원해서 텔레파시로 멀리 떨어진 곳의 누군가에게 수신호를 보내는데 어느 날 해변 구석진 곳에서 중국인 유령 링 우를 만나게 된다. 그는 외로워하는 존에게 뇌세포를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밀을 가르쳐 준 후 처음 연습할 때 멀리 날아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절대 아무에게도 평생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그러나 하늘을 날아서 멀리 있는 곳에 사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기쁨에 젖은 존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밤 중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날아갔다가 고기잡이 어선의 일꾼들에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들키고 만다. 그 후 미 정보국에서 제보를 받고 비행 물체를 찾으려 하고 설상가상으로 존은 하늘을 나는 능력을 통제하지 못해 계속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면서 많은 사건에 휩쓸린다.

하늘을 나는 소년은 누구나 한 번은 꿈꿔 봤을법한 어린 시절 하늘을 나는 상상을 실현시킨 소설이다. 작가의 상상력과 미 루스벨트 대통령의 배경이 더해져 현실감 있으면서 흥미로운 사건들로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와 빠른 이야기 진행방식이 인상적이다.

**Keywords** : 공중부양, 마술사, 텔레파시, 뇌세포, 클레멘타인 섬, 유령, 루스벨트 대통령, 비행물체

사건이 시작되다.

“내가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존, 그러니깐 네가 살짝 떠오른 것 같았던 말이 지”

존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공중부양 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다.

“그냥 살짝 뵈 거예요.” 존은 아버지에게 얼버무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이제 하늘을 나는 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건가?

존은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갑자기 몸이 떠올라서 아버지만큼이나 존도 놀랐다. 어쩌면 자신의 뇌가 공중부양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잠식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무서운 생각이었다.

그는 일부러 이 멋지고 신비로우며 획기적이고 특별하며 초자연적인 자신의 뇌 세포 사용을 멈추지 않겠지만 동시에 뇌세포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 하늘을 나는 소년

테오도르 타일러

하코트 출판사

올랜도      오스틴      뉴욕

샌디에이고      토론토      런던





증손자 아담과 나다니엘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

~T.T.

## ~ 제 1장 ~

몸무게 24kg, 키 127cm, 갈색 눈과 갈색 머리를 가진 9살 조나단 제퍼스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 제임스와 어머니 마벨과 함께 빨간색으로 페인트칠 된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그의 집은 쓰리 페덤 솔 앤 퍼시폰 리프 부근 클레멘타인 바위섬에 있고, 그 옆에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19마일 떨어진 오래된 흰색으로 칠해진 벽돌 등대가 자리한다.

존에게는 스맥스라는 이름의 갈색과 검은색 뒤섞인 큰 개가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종이다.

존이 간절히 친구를 원해서 존과 스맥스는 늘 함께 다녔다. 스맥스는 그 옆에 있어 주면서 존을 최대한 보살폈다. 매일 밤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이 낀 낮에는, 등대에서 나오는 강한 빛이 배가 바위, 모래톱, 암초 등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고하며 사방을 돌아가며 비춘다. 등대 빛은 큰 발전기로 작동되는데, 존의 아버지는 미국연안 경비대 갑판 하사 즉 갑판장으로 이곳의 등대지기이다. 달 밝은 밤이면, 22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지나가던 배가 그 빛을 볼 수 있다. 차가운 안개가 클레멘타인의 북쪽인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질게 드리워질 때는 우렁찬 농무경적 소리도 들린다. 몇 시간이나. 가끔은 몇 날 며칠이나.

아아아아렛 아아아아렛츠

이 소리는 강하게 보이는 타원형 얼굴의, 등대가 비추는 것만큼이나 넓은 상상력을 지닌 존에게는 ‘아-레츠’ (아-쥐들)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안개와 그 ‘아-레츠’ 처럼 들리는 경적 소리를 싫어했다. 그는 온종일 외딴 섬 바위를 짊어대는 물개들도 정말로 싫어했다.

처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밤이면 존은 이따금씩 클레멘타인에 얽힌 유명한 유령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 바위는 1850년 난파

된 범선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그 배는 철도를 짓기 위해 광동에서 중국 노동자를 싣고 샌프란시스코를 향하고 있었다.

승객 129명이 모두 사망했고 이 유령들이 바위 주변에 아직도 맴돌고 있다고 존보다 나이 많은 유니스에게 들었다. 유니스 누나는 그 전에 연안 경비대 집안의 딸이었고 지금은 존의 아버지가 그 일을 맡았다. 유니스 누나는 13살이었고 그 또래에 비해 키가 컸으며 몸은 나무젓가락처럼 뼈쩍 말랐다. 누나는 바위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누나가 말하기를 뿌연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날에는 유령들이 바다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와 클레멘타인의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데, 절벽 모양이 꼭대기에 잡초가 달린 길고 높은 박스 같다고 했다. 유령들은 절벽을 올라가면서 구슬프게 울음소리를 낸다. 존은 유니스 누나가 해준 이야기와 그 깊은 울림을 내는 등대 고동소리 때문에 끔찍한 악몽을 꾸기도 했다. 누나는 살아있는 시체들인 유령들을 만난 적이 있었고 존도 곧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유령들은 으스스해 보이지만 불쌍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라며 바위 밑에 산다는 말도 덧붙였다. 존은 그 말을 하는 누나가 더 오싹 하다고 생각했다. 누나는 긴 손톱을 가지고선 허 짧은 소리를 냈다. 유령들 중에는 쓰리 페덤 솔과 퍼시폰 리프 부근에서 난파된 배의 선원이었던 유령들도 있다고 말했다. 철제 선박의 녹슨 뱃머리가 아직도 암초에 걸려 있어 상어가 턱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위를 파도가 스쳐지나 갔다. 60년 전 정부에서 등대를 세우기 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 바위, 모래톱, 암초에 부딪쳐 목숨을 잃었다.

존의 엄마와 아빠는 유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유령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수영할 수도, 바위 밑에서 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존은 부모님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밤에 30초 간격으로 맞추어 놓은 경적소리가 30초정도 소리가 나지 않을 때면, 존은 유령들이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창 너머 먼지가 두껍게 말려가는 것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물을 툭툭 흘리는 불쌍한 중국 유령의 얼굴이 자신을 쳐다보며 거기 있을 것만 같았다. 스텝스마저도 그런 날에는 더 신경이 곤두선 듯 보였다.

존의 아버지는 그 소리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상상력이 아니라 그의 귀였다. 그는 청력이 너무 예민하

여 그 울음소리가 너무 진짜처럼 들렸고, 그래서 그런 날이면 유령이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빌며 베개로 자신의 귀를 막고 몸을 벌벌 떨었다.

유니스 누나는 그가 그곳에 있다면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미쳐가는 중일 지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는 3년을 그 바위에서 근무해야 했다. 지금까지 1년이 흘렀을 뿐이다.

존은 계속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일을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는 초등학교를 다녔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5일 오전에 어머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져온 교과서와 시험지를 가지고 그를 가르쳤다. 두 모자는 라디오도 함께 들었다. 그리고 존은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들은 후에 자신을 세계 곳곳으로 데리고 가는 꿈을 꾸었다.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등. 클레멘타인만 아니면 어디든 좋았다. 어디든!

따분한 낮 시간을 견디기 위해 존은 큰 선박들이 클레멘타인 등대가 비추는 빛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관찰했다. 그가 탑 위로 뛰어 올라가면 스맥스가 그의 발치를 뒤따랐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선박들을 지켜보았다. 만약 배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면 존은 손을 흔들고 자신의 관측노트에 배들의 이름을 적어놨을 것이다.

화창한 날에는 일요일에 개인 비행기들이 연안에서 날아와 등대 주위에 원을 그리며 돈다. 그러면 존은 다시 등대 플랫폼으로 달려가 손을 흔들었고 파일럿들은 종종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그는 조종석이 보이는 복엽기를 가장 좋아했다. 그는 시간을 때우고 클레멘타인 유령 생각을 떨치려고 주로 세계 1차 대전 전투기 비행기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

## ~ 제 2장 ~

작년 뉴멕시코에 사시는 존의 할아버지가 존에게 『과플러 사이언스』 잡지 구독권을 선물했고 그는 모든 발행 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스스로를 제퍼스 선생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광고주들에게 보디빌딩이라든가 탐정되기, 항공이나 전자기기 분야에 직업에 관한 메일을 썼다.

때는 1935년, 바야흐로 위대한 과학 진보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찰스 린드버그가 혼자 대서양을 비행기를 타고 건너고 발성영화가 발명되고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이 발사되던 시기였다. 존은 자신의 펜팔친구가 되어달라며 린드버그에게 편지도 써봤지만 답장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과플러 사이언스』 잡지의 한 발행 호에는 특별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존은 그 기사를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정신현상을 다루는 사람인 초심리학 박사가 쓴 글로 텔레파시 즉 오직 사람의 정신으로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존은 전 세계 곳곳에 메시지를 보내며 텔레파시를 연습했는데 가끔은 너무 과하게 집중해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정신 과동 메시지를 어떤 수신자에게서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너무 어려서 두뇌가 덜 발달된 것이라고 위안했다.

텔레파시에 빠지기 전에도 존은 자신이 있는 곳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적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병 속에 담아 바다로 던졌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탄 배가 난파되어 유령으로 가득 찬 끔찍한 바위섬에 갇혀있어요. 발신인: 존 제퍼슨, 미 연안 경비대 1등병 수병.*

그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저녁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야기는 알비 즉 알바트로스에 관한 것으로 조나단 제퍼스가 커다란 알

바트로스 새 등에 타고 파리나 아이슬란드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와 스맥스는 북극해에 떠다니는 얼음을 타고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그는 카우보이나 해적, 밴드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리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기승전결을 가진 짜임새 있는 스토리였다.

“언젠가 너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그의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때에 존의 관심사는 오직 클레멘타인 바위섬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의 문제는 매우 단순했다. 그는 스맥스 말고는 친구는 물론 놀이상대도 없고, 엄마, 아빠, 그리고 클레멘타인 섬 주변의 물개와 바다 새 말고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섬에서 가장 좋을 때는 연안 경비대 물품 공급 선박이 섬에 들릴 때였다. 그 배가 가까워지면 스맥스도 기뻐서 짖어댔다. 날씨가 좋으면, 배는 신선한 과일, 우유, 고기, 우편물과 샌프란시스코 연대기 잡지의 지난 호를 가득 싣고 출항한다. 보통 연안 경비대 선원은 들어올 때 존에게 캔디와 책 한 두 권 정도를 사다 주지만, 부두에서 바위 아래 단단히 매여 있던 밧줄이 풀어지며 배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버리면 존은 다시 그 익숙하고 오래된 슬픔에 빠져든다.

일 년에 한 번, 다행스럽게도, 존 가족은 미국 본토로 6일 동안 휴가를 떠나게 된다. 첫 번째 휴가에서 존 가족은 친척집에 방문해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은 쏠살같이 흘러 그들은 다시 바위섬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오두막집 바깥에서 짙은 잔디가 부드럽게 부는 사람에 너풀거리고 이따금씩 거센 바람이 불어와 잔디를 눕히거나 세찬 호우가 그 앞에 떨어졌다.

존은 다시 돌아와 스맥스나 지저귀는 새와 대화하며 부두에서 낚시하거나 아버지 망원경으로 지나가는 배를 보면서 자신도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본다. 유니스 누나가 예전에 경고했던 클레멘타인의 괴로울 만큼 반복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가 이것저것 할 것 다 하고 나자 상상하거나 공상하고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파시를 연습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청명한 밤이면 창문 밖 너머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자신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소망해본다. 존은 물 위를 걸거나 파도를 헤치고 나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긴 여

정이 될 터였다. 어느 날 오후에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발이 하나도 젖지 않은 채 큰 도시로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근사할 거라도 생각했다. *하늘을 날아서! 바위섬을 탈출하자! 이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존은 스맥스에게 이야기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스맥스는 언제나 반겨줬다.

그래서 이후 며칠 동안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는 엄마에게 말을 했고 그의 엄마는 땅을 내려다보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꿈꿔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그녀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꿈에서 그녀는 팔로 날개 짓 하지 않고도 날 수 있었다. 그녀는 실제로 몸이 날아다닐 수 있다면 멋진 거라고 맞장구쳤다.

어떤 날 밤에는 엄마가 수놓은 펠리컨 노란색 침대보가 덮인 붉은 색 4개의 기둥이 있는 그의 작은 침대 안에서 존은 자신의 침대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 엄마의 제라늄 냄비 넘어 넓은 창밖으로 날아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한번은 꿈속에서 자신이 4주식 침대에 앉아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 우당탕 소란을 내며 도시 한복판에 착륙하는 경험을 했다.

실제로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의 크기를 재보았다. 침대의 각도를 조금만 기울이면 쉽게 창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러한 밤에는 그는 텔레파시도 연습했다. : *응답하라. 여기는 존 제퍼스다. 태평양 가운데 바위섬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하늘을 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듣고 있어야 했다.

### ~ 제 3장 ~

바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파도가 클레멘타인 바위섬을 삼킬 듯 몰아쳤던 밤이 지난 다음날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9월 아침이었다. 존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작은 해변의 후미진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지난밤 파도에 무언가가 휩쓸려왔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의 뒤를 따라 스맥스가 54걸음 바닷가로 졸졸 쫓아가고 있었다.

이따금씩, 존은 일본제 유리 어망, 외국어가 쓰인 나무상자, 유리병, 구멍 튜브 따위를 발견하곤 했다. 또 한 번은 비행기의 연료 탱크가 연안으로 휩쓸려왔고 존의 아버지가 그것의 큰 구멍을 잘랐다. 이 탱크는 지금 빨간 오두막집 앞마당에 쓸 만한 그네로 변신했다.

그날 아침 조류가 멀리서 넘실거리고 있고 몇몇 속이 빈 조개껍데기와 나선형 고둥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곳을 바라보며 축축하고 물결모양이 난 모래사장을 발끝으로 쿡쿡 찔러댔다.

물고기를 잡으러 다이빙하는 펠리컨과 가마우지와 함께 바위를 쓰는 물개가 낮설 만큼 조용했다. 마치 해변 만에다 누군가 주문을 걸어놓은 것 같았다. 물개들이 그토록 조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갑자기 존은 그를 보았다. 해변 구석 저만치 떨어진 곳 바위언덕에서 한 낫선 남자가 낫선 복장을 하고 앉아 있었다. 새틴 재질의 붉은색 가운 앞섬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검은색 벨벳 바지와 발가락 쪽에 말아 올라진 붉은색 털신발이 드러났다. 그의 흰머리는 이마에서 빗어 뒤로 넘겨져 한 가닥으로 땀아 등 중간까지 내려왔다. 머리에는 뒤집은 컵 같이 보이는 작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스맥스도 그를 보았다. 스맥스는 클레멘타인에 침입해 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짚어 댄다. 가끔 바위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는 범고래 무리에게



도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퍩스가 짓지 않았다. 스퍩스는 그 낯선 남자를 쳐다보고 방향을 돌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내린 채 왔던 54 걸음을 되돌아 달려 갔다.

그 낯선 방문객은 존의 아버지가 마른 것과는 정반대로 뚱뚱했다. 그의 얼굴은 호박처럼 둥글고 생소했다. 생소했던 그날의 날씨만큼이나. 그의 피부는 황갈색이고 마치 기름이 한 겹 얼굴 전체에 발라진 듯 번들거려 보였다. 그는 매우 나이 들어 보였지만 주름살은 전혀 없었다. 그의 낮은 코 너머 쓰리 패덤 솔 방향으로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는 유니스 누나의 친구일까?

존은 달려가서 등대 외부 계단 위쪽을 페인트칠 하고 있는 아버지를 부를까 잠시 고민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직 집안에 있을 것이다. 존은 부모님이 모두가 남자를 만나면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 어쩌면 자신은 아직 잠이 덜 깬 채 사주 식 침대를 타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유니스 누나가 예견한 것처럼 진짜 미쳐가고 있든가.

존은 깜짝 놀랐지만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 방문객은 진짜로 해변 구석 전체에 주문을 건 걸지도 모르겠다. 물개들이 입을 다물었고 스퍩스도 마찬가지였다. 갈매기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 남자가 타고 온 보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젖지도 않았는데 헤엄쳐서 섬에 들어왔을 리도 없다. 존은 유니스 누나와 누나가 얘기해준 클레멘타인 유령들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러나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전에 누나가 묘사했던 하얗게 아교화된 눈에 축축한 손을 가진 거미줄을 뒤집어 쓴 유령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에게 말을 걸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관심을 끌고 싶었기 때문에 존은 작은 나뭇조각을 집어 바다 속으로 던졌다. 그 낯선 남자가 곧장 고개를 돌렸다.

“안녕?” 하고 그 남자가 영어로 말을 건넸다. 본토에서는 물론 라디오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어조였다. 틀림없는 외국인 목소리였다.

“전 저쪽에 살아요.” 라고 자신의 어깨 너머를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존은 왜 겁먹지 않았을까?

“나도 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존은 꽤나 영리한 질문을 했다.

“네가 길가를 따라 내려오는 걸 봤단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여기에 있지도 않았는걸요.”

“아니란다. 나는 있었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죽었나요? 유령이에요?”

“맞아. 나는 오래 전에 죽었지만 멍청한 유령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지. 클레멘타인 호가 과거 화산이었던 이 망할 바위에 부딪혔을 때 나는 죽었지. 나는 이 빌어먹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조국의 동료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청왕조의 명에 따라 이곳으로 보내졌어. 그러니 존, 더 이상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말거라.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죠?”

그 남자는 약간 시큰둥하게 냉소 어린 미소를 보였다. “나는 너의 바보 같은 과동을 몇 달 동안이나 받고 있었어.”

“제 ‘과동’ 을요?” 텔레파시가 효과가 있었어!

“너의 생각, 너의 망상 말이다. 꼬마야. 너는 매일 밤마다 내가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때 계속 나를 성가시게 굴었지. 나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말이야. 나는 계속해서 ‘몸이 뜬다, 몸이 뜬다.’ 라는 수신호를 지긋지긋하게 받고 있었다고. 나는 다른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게 매우 힘들어졌어. 그리고 이제 너를 만나보니 넌 가장 하찮은, 관심을 줄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겠다.”

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 남자의 눈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은 불멸을 보여주는 듯 했다. 영원히 계속되는 두 개의 녹색 터널과 같은. 그는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그는 어디서 왔을까?

“그나저나 나는 위대한 마술사 링 우 라고 한다. 마술사이자 천상의 궁전 일원이기도 하지. 너에게 나 좀 혼자 내버려 두라고 말하려고 여기에 왔어.”

## ~ 제 4장 ~

“나는 천상의 궁전이 뭔지 몰라요.” 존 제퍼스가 말했다.

“이 이단아 같으니! 네가 만약 약간이라도 ‘뇌’ 라는 걸 갖고 있다면 내가 부처의 아들인 황제 폐하의 신성한 왕족 악단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다.”

존은 그가 하는 다른 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아’ 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존의 얼굴을 읽은 링 우는 한숨을 쉬고는 “‘이단아’ 이라는 말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지. 즉 부처의 광명 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인간이라고. 바로 너처럼”

그는 침을 삼키고는 지금이라도 아빠에게 달려가 자신이 꿈을 꾸지 않고 있다고 증명해 보일까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은 제정신이라는 것도.

그러나 그의 발은 모래사장에 접촉제로 붙인 듯 꼼짝도 안 했다. 그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에 대한 주제를 돌리기 위해 “저는 아저씨 같은 옷차림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라고 말을 건넸다.

“내 옷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링 우는 코웃음 쳤다.

“붉은색 가운을 입은 남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벨벳 팬츠도요”

“내가 무슨 녀마라도 걸쳤단 말이나?” 링 우가 호통을 쳤다.

“마술사님이 다른 유령들과 함께 산다면 왜 아저씨의 옷은 젖지 않은 거죠? 참으로 적절한 질문이라고 존은 생각했다.

“너 같은 건방진 꼬마는 어떤 대답도 들을 자격이 없지.” 링 우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이 유령 같지 않은 유령 아저씨의 기분을 풀어야 할지 몰라서 존은 일단 사과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 마술사 링 우가 물었다.

“아니요. 마술사님.”

이 뚱뚱한 마술사는 크고 둥근 붉은 돌이 점점이 박힌 반지를 낀 소시지 같은 손가락을 펼쳤다. 존이 눈 깜박이기도 전에 하얀색 비둘기가 한 손가락 위에 나타났고 그러더니 공중으로 퍼덕거리며 날아갔다. 갑자기 링 우가 왼손으로 검은 토끼 한 마리의 귀를 잡고 있었다. 링 우가 토끼를 놓아주자 토끼는 길가로 짱충짱충 뛰어가더니 마침내 비둘기가 그랬던 것처럼 사라졌다. 링 우는 아무것도 안에는 없다는 걸 보여주듯 선명한 붉은색 가운을 먼지를 날리며 펼럭였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다. 링 우가 자신도 사라지게 할 것 같았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술사다. 그 어떤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수 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부터 수 천 년이 지난다 해도 나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할 사람은 결코 없을 거야.” 겸손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조로 링 우는 말했다.

녹색 두 눈이 번뜩이고 양피지 같은 피부가 번들거렸다.

“다른 속임수도 보여 주세요” 존이 말했다.

“속임수? 속임수라고?” 링 우가 으르렁거렸다.

존은 자신이 말실수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방금 황궁이나 북경 대연회장이나 전시회에서 황제와 신하들에게 시전 하던 나의 예술을 보여 준거야. 속임수라니. 정말 이 닭대가리야!

존은 지구상 어떤 조류보다도 더 멍청하고 하찮은 것 같다고 느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링 우가 눈 주변의 피부를 당기며 자신의 눈을 가늘게 떴다. “잘 봐”

존의 눈 앞, 다가오는 파도 맞은편에서 위대한 마술사 링 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이 그를 하늘로 잡아당기듯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의 몸이 곧 갈색 자갈이 덮인 바위 위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재미있다는 듯 뒤로 누워 두 발을 쭉 펴며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다.

“마술사님 지금 떠올랐어요.” 존이 숨죽인 채 말했다.

“확실히 그렇지.” 링 우는 대답했다.

존은 등대 쪽을 쳐다보자 아버지의 손가락이 철제 사다리 위쪽으로 뻗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버지도 자신들의 해변 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소리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렸다.

“어이. 이것은 오직 너만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선 안 돼. 만약 네가 말한다면, 너를 외눈박이 두꺼비로 만들어버리겠다.” 마술사는 경고했다.

존은 합죽이처럼 두 입을 꼭 다물었다.

마술사는 이리 저리 방향을 틀었다. 새라도 되는 냥 가운 소매를 펼럭이더니 물에서 수영하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듯 하늘에서 수영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악마 같은 미소를 띠었다.

존은 알아차렸다. 링 우는 그저 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몸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였다.

~ 제 5장 ~

중국인 미술사가 줄이 없는 커다란 연처럼 편안하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보며 “믿을 수 없어!” 라고 존은 소리쳤다. 그 모습은 마치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 같았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보고 있잖니, 안 그래?” 링 우는 마침내 바위 쪽으로 몸을 내려오더니 웅장한 붉은 색 가운을 정돈하고 다시 자리 잡고 앉았다.

“이건 망토인가요? 이것 때문에 마술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거죠?” 존이 흥분하며 물었다.

“완전히 헛짚었어.”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일이라니?”

“몸이 나는 거요”

“공중부양이라고, 애야.”

“공중...뭐요?”

“.....부양. 공 중 부 양.”

이것은 크게 입을 잡아당기고 입술을 모으는 단어였다. 공중부양.

“방법만 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

“저도 말인가요?” 질문을 던질 때 그의 목소리는 기대감에 설렘다.

링 우는 두 녹색 동공이 분노로 쏘아대며 두 눈을 매섭게 뜨고 있었다.

“네가 지금 내 비밀을 묻고 있니 거냐? 내가 보기에 너는 그저 가치 없는 이단아일 뿐인데”

저 끔찍한 단어가 또 나왔다. “이 비밀 딱 하나요. 딱 하나 만요, 마술사님.” 존은 용기를 쥐어짜내 말했다. 그는 가끔 클레멘타인 바위섬을 떠나 본토에서 친구를 찾아 재미있게 놀고 집으로 날아 돌아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비밀 딱 하나만 말이지, 이 버러지 같은 녀석. 너는 이걸 굉장히 별거 아닌 듯 말하는 바로 그 생각. 어찌나 건방진지.” 링 우는 다시 한 번 격노했다. 그의 얼굴색은 가운데처럼 붉으락푸르락 해졌다. 그의 아래턱이 부들부들 떨리고 통통한 손가락들이 주체할 수 없게 바들거렸다.

링 우가 마음만 먹으면 아까 비둘기나 토끼처럼 자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존은 지금이 자신의 삶 통틀어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

그의 녹색 동공이 자신을 갈기갈기 파헤쳐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의 심장을 쿵하고 꿰뚫어 버릴 것 같았다.

그래도 존은 남은 용기를 다시 한 번 끌어 모아 말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마술사님도 저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떤 날 아침에는 깨어나기조차 싫다고요.”

링 우는 수도꼭지 잠그듯이 자신의 분노를 눌렀다. “음…… 아까 네가 욕심 부렸던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지.” 그리고 그 뚱뚱한 손가락을 존의 가슴으로 겨누었다. “너는 누구에게도 이걸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영원히. 죽어서도.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내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너의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내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그럼, 너의 이모나, 삼촌이나, 사촌, 친구나 적의 명예를 걸고?”

존의 입은 생 오트밀처럼 바짝 말랐다. 그는 따라 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이모나 삼촌이나…….”

“됐고, 나는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로! 마술사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이 맹세는 죽음이 자신을 갈라놓고 그 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결단코 말하지 않을 거다.

마술사는 이제 눈을 가늘게 치켜뜨며 눈빛을 빛냈다. “팔팔 꿰어대는 용의 담즙 속에 빠뜨리겠다거나 불타는 지푸라기로 코를 막아 질식사시켜버리겠다는 험박 속에서도.” 그는 손을 불쑥 꺼내 한 줌의 불타는 지푸라기를 움켜쥐었다. 그는 그것을 공중으로 던졌다.

존은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너의 귀는 염소의 뿔로 변하고 너의 발이 상어의 등에 못질된 채……” 링 우는 해변만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10피트짜리 상어 한 마리가 위협적으로 돌아다녔다.

희미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존은 겨우겨우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 조아리기 의식을 행한 천상의 궁전 일원에게 절대적으로 맹세합니다,”

존은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로 “세 번…”

“됐어.” 링 우가 말을 끊었다.

그는 그의 항아리 같이 나온 배 위로 팔짱끼고서는 한동안 말없이 존을 응시했고 그리고 나서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셨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지.”



## ~ 제 6장 ~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건 나의 놀랍고도 엄청난 두뇌 덕분이지. 그게 다야. 바로 나의 놀라운 두뇌” 링 우는 말했다.

“너처럼 나도 수 십 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있어. 그렇지만 너와 대부분의 다른 쓸모없는 인간과는 다르게 나는 그 뇌세포를 다룰 수 있거든. 나는 약 오백만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공중부양 할 수 있어. 그것 보다 적어도 가능하고. 그러나 나는 그만큼은 되어야 안전하게 나를 잡고 있다고 느끼거든”

빨래 통만큼 배가 나온 링 우 라면 오백만개 뇌세포가 족히 필요했을 거라고 존은 생각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수 십 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은 적 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뇌세포에 공중부양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존은 감히 묻지 못했다.

링 우는 말을 이어갔다. “집중, 이 쓸모없는 녀석아. 나는 이 모든 놀랍고도 엄청난 에너지를 한데 집중시키지. 이것은 강력한 힘을 낸다고. 나를 믿어봐. 칠백만개의 뇌세포를 사용하면 이 보트를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존은 바위에 고정시킨 고리에 체인으로 연결된 아버지의 작은 배가 마치 강력한 돌풍이 그 배를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듯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링 우가 말하길 “내가 십억 개의 뇌세포를 사용하면, 저 등대도 들어 올릴 수 있어.”

“안돼요! 제발!” 그의 아버지가 밑으로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존은 소리 쳤다.

흠……” 저 흰 실린더 같은 탑을 훑어보며 링 우는 사려 깊은 척 말했다.

존은 필사적으로 화제를 바꾸고 싶었다. 그는 마술사가 저 오래된 벽돌 탑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집중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저는 공중...”

“부양! 집중과 공중부양. 링 우는 등대에서 시선을 돌려 고개를 끄덕였다.

“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계속 되뇌기만 하면 되겠네요.” 존은 흥분에 차서 말했다.

“바로 그거지.”

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멍청한 이단아야, 넌 이걸 하룻밤 만에 터득할 수 없는 거야. 너의 몸이 이 생각에 익숙해져야 하거든. 족히 몇 주는 걸린다는 거지.” 링 우가 힐난하자 존은 눈을 떴다.

“연습할게요.” 존은 필사적으로 답했다.

링 우는 다시 끄덕였다. “너는 수없이 연습해야 해. 그리고 방법을 터득하게 되더라도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마. 너는 이것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해야 돼. 사람들은 공중부양 하는 걸 어디서도 본 적이 없으니깐. 밤에만 해야 해.”

그러나 존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뜨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즐거워할 지 상상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때론 나비처럼, 때론 벌새처럼.

그러나 링 우는 존이 엄청난 사고를 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챈 듯 했고 마치 자신의 비밀을 말해준걸 벌써 후회한다는 듯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재난과 맞닥뜨렸지. 안개가 많이 낀 날이나 폭풍우 치는 날, 바람이 심한 날에는 날지 마. 너무 먼 거리를 나는 것도 안 돼! 처음에는 특히!

존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 했지만 그가 한 충고의 말들을 바람결에 흘려보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마법의 그 단어 ‘공중부양’ 으로 가득 찼다.

링 우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즐거운 시간 보내길, 존 제퍼스. 이제 너는 진짜로 매나 왜가리, 벌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어. 연처럼 솟아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걸 잊지 마라. 연은 자신을 땅에 붙잡아 둘 줄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너는 그 줄이 없어.”

그러나 존은 연 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도시 상공을, 고속도로 위를, 해변 하늘을, 도로, 숲, 강가 위를 따라 쏘살같이 날아다니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

제퍼스입니다!’ 링 우 마술사 말이 맞았다. 존은 절대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존은 링 우의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다.

“뒤로 돌아, 쓸모없는 꼬맹이.”

그는 고분고분히 돌아서서 등대의 꼭대기 부분을 올려보았다. 그곳에는 존의 아버지가 여전히 페인트칠 하고 있었다. 그 때 존은 저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다. 그가 다시 뒤 돌아 보았을 때, 위대한 마술사 링 우는 사라지고 없었다. 물개들이 다시 짖어대기 시작했다.

스맥스는 낯선 방문자가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숨고 있던 장소에서 빠져 나와 물개의 탁한 ‘빠액’ 소리와 ‘끼욱’ 거리는 소리에 장단 맞춰 용감하게 도망갔던 54걸음을 질주해 돌아왔다.

존은 스맥스를 보며 외쳤다. “겁쟁이! 난 방금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다고.”

링 우는 집중과 공중부양, 또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개에게 까지 말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존은 이제 다시 모래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부두로 몇 걸을 다시 걸어갔다. 그는 해변 구석진 곳의 전경을 둘러보았다. 그는 작은 배 쪽으로 걸어갔다. 그 배는 아까 들어 올려진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마술사가 앉았던 자갈 바위로 갔다. 링 우가 입었던 가운이나 벨벳 바지의 흔적은커녕 실오라기 한 가락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링 우는 진짜 떠돌아다니는 예견한 대로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가? 유령일까? 그저 바보 같은 백일몽은 아니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유니스 누나가.

존은 방금 있었던 일을 아빠와 엄마에게 말할까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곧 팔팔 끓는 용의 담즙 속에 빠진단든가 상어 등에 못 박히거나 불타는 지푸라기로 코를 막는 모습들이 이것저것 상상되었다

아무래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인 것 같다.

~ 제 7장 ~

그날 밤, 저녁 식사시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소고기 스투와 집에서 만든 누들 요리를 앞에 두고 존은 아빠에게 질문 하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질문은 링 우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 자신이 해변 만에서 백일몽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공중부양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눈썹을 잠시 찌푸리고는 대답했다. “그것을 위로 떠올라 공중에서 떠다니는 거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존.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란다. 초자연적인 것이지. 그 말을 어디서 들었니?”

“달빛 쇼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거짓말이다. 그리고서 물었다. “엄마, 중력은 뭐예요?”

“그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데 지상의 물체는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란다.” 존의 엄마는 정말 현명하다. 그녀는 교사 출신이었다.

존은 또 눈썹을 찌푸렸다. 지상의 물체는 또 뭐란 말인가?

“내일 아침 그것에 대해 함께 더 알아보자. 식사 하렴”

그는 몇 수저 더 뜨더니 부모님 모두에게 물었다. “용의 담즙은 뭐예요?”

그의 아버지는 웃었다. “내 생각엔 용의 위염에서 나온 염산 같은데”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용의 담즙이라, 음, 아무래도 네가 듣는 그 문 빔 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

존은 이미 자기 소유의 라디오를 가졌다.

그는 부모님께 살짝 미소 지었다. “천상의 궁전은 뭐예요?”

“그건 신성한 궁정이라는 뜻이야.” 그의 어머니는 대답했다.

그는 이제 링 우가 진짜로 클레멘타인 해변 구석진 곳에 왔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쩌면 유니스 누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링 우가 바위 밑 해저동굴에서 다른 유령 무리들과 짓지 않은 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혹은 그는 중국에서 살았었거나. 아, 부모님은 그걸 모르시지. 존은 부모님이 죽은 채 살아 돌아다니는 마술사에 대해 얘기해본 적 없다고 분명히 확신했다.

“오늘은 이상한 질문들만 하는구나, 존. 그래도 이런 게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지.”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존은 테이블을 떠나고 싶어 초조해하며 난처한 웃음을 보였다. 부모님이 다른 주제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는 동안 서둘러 스튜와 누들 그릇을 비우더니 “전 잠자리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놀라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는 보통 잠자리 하지 않아 속을 썩이는 아이였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냥 졸린 것 뿐 이예요.”

그래서 존은 부모님에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키스를 하고 그의 방으로 뛰어갔다. 그 뒤를 스맥스가 따랐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기도하고, 침대에 올라가 최대한 깊게 숨 호흡을 했다.

이제 실험해 볼 시간이었다.

그의 몸이 잘 뜰 수 있도록 베개를 저만치 치워두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떠올라라, 존, 떠올라라! 떠올라라, 존, 떠올라…….”

스맥스는 이쪽저쪽으로 고개를 곧추세웠다. 스맥스는 인간 친구 존이 혼잣말하는걸 보는데 익숙했다.

상황은 괜찮았다고 존은 생각했다. 한줄기 달빛이 방 창문을 통해 비쳐졌다. 안개도, 절벽을 기어오르는 유령들도 없었다.

그는 한 순간이라도 자신이 공중부양 되는 느낌을 받기를 기대하며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스맥스는 잠시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다가 잠이 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존은 이불보가 그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불보를 발로 밀어버리고 한 번 더 집중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꿈적도 안했다.

위대한 마술사 링 우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려 애쓰며, 그는 계속 말하기 시작했다. 오백만 개의 뇌세포가 그의 머리 한 지점으로 모여 모두 힘을 합쳐 자신을 위로 떠올려 주기를 기대하며.

“오백만 개의 뇌세포들아, 나를 들어 올려줘. 나를 들어 올려라, 명령이다!”

그것도 효과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해서 주문을 외웠다. “떠올라라, 존, 떠올라라” 그는 그것을 중얼거리며 마침내 곪아떨어지고 말았다.

9시 30분 즈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보가 침대 구석에 밀려난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잘 덮어주고는 방을 떠났다.

스맥스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고된 하루였다.

## ~ 제 8장 ~

다음날 존은 하루 종일 연습했다.

그는 링 우가 앉았던 자갈 바위 위에서도 거친 잔디밭에서도 연습했다. 그는 등대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전등 실 밖 작은 복도로 갔다. 늘 그렇듯 스맥스가 그 뒤를 따랐다. 스맥스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으니까.

지상 160피트 높이에서 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며 존은 철재 마룻바닥에 누워 반복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떠올라라, 존, 떠올라라!” 위로 부는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갖은 노력을 하다가 그의 노가 너무 피곤해지자 그는 포기하고 나선형의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내부 계단으로 내려왔다.

땅거미 질 무렵까지 여전히 피로가 가시지 않아 저녁식사 후에는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링 우나 공중부양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몇 분 만에 골아 떨어졌다. 존은 7시간동안 계속 잠을 잤고 새벽 2시에 문득 잠이 깼다. 그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고, 그의 뇌도 재충전이 되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10초마다 환한 등대 빛이 그의 창을 비추고 그 후에는 다시 암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바람이 붉은 오두막집을 두드리고, 파도가 바위섬 아래 부분에 부딪혀 철썩거렸다.

다시 연습하기 좋을 때라고 존을 생각했다.

잠시 동안 그는 가만히 누워서 이불을 저만치 밀어냈다. 천천히 호흡을 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면서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로 오백만 개의 뇌세포에 자신을 들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조용하게 그는 명령했다. *떠올라라, 존, 떠올라라.* 바로 그때, 그는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불가능한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침대 시트에 몸이 뜨고 있었다. 1인치, 다시 1인치, 또 다시 1인치. 그는 근육 한번 움찔 하기도 숨 한번 들이키기도 조심스러웠다. 그는 눈동자만 움직일 뿐이었다. 좌우로, 아래로 발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그는 자신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 손으로 그의 등 아래를 만져보려 했다.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나는 잠시 동안 그냥 허공에 있을 거야. 그냥 가만히. 만약 자신이 주술에 걸린 것이라면, 만약 이것이 진짜 공중부양이라면, 그는 이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링 우라면 지금 나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는 자신의 서랍 위 큰 거울이 기억났다. 침대에서 그는 항상 거울을 볼 수 있었다. 가끔은 일어나자마자,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다음 등대 빛이 창문을 통해 비출 때를 기다렸다. 재깍 재깍 몇 초가 흐르고, 다음 번쩍하고 비추는 환한 빛 속에서 그는 갈색 눈과 갈색 머리를 가진 9살 조나단 제퍼스라는 소년이 자기 침대 위 공중에 떠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밤눈이 밝은 스맥스가 자기 주인이 이상하고 위험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경계 태세를 취하며 짚으려 하자 재빨리 속삭였다. “짚지 마! 스맥스, 모든 게 망치게 될 거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건 적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상관없이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도에 나오지도 않은 하늘 길에서 폴짝폴짝 뛰어보기. 구름 위에서 낮잠 자기, 독수리에게 손 흔들기, 지붕 위에서 춤추기.

피터 팬이 그 일을 해냈다.

양탄자를 탄 알라딘이 그 일을 해냈다.

링 우가 그 일을 해냈다.

그리고 지금 조 제퍼스가 해낸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고도 믿을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다.

존은 소리치고 괴성을 지르고 야단법석을 피우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 부모님이 방으로 당장 달려올 것이기 때



문이다. 두 분 모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허공에 공중부양 하는 모습을 보시자마자 기절초풍 할 것이다. 그리곤 질문을 쏟아내겠지.

존은 깊게 호흡을 하고 소리 내어 말했다 “저쪽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뇌세포를 활용해 마음속으로 말했다. 갑자기 그는 방향을 바꿔 거울 쪽으로 곧장 날아갔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혀 떨어졌다. 그는 아픔에 소리 질렀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방으로 들이닥쳐 그가 서랍장 위에 너무러져 있는 걸 발견한 후에는 이미 공중부양이 끝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줄음이 채가지지 않은 눈으로 아버지가 외쳤다.

“나쁜 꿈을 꿴어요.” 존이 말했다. 또 선의의 거짓말이다.

“확실히 그런 것 같네. 다친 곳은 없고?” 어머니가 물었다.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떻게 서랍장 위로 올라간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이틀 동안 벌써 네 번째로 거짓말을 하며 대답했다.

## ~ 제 9장 ~

다음날 지난밤에 교훈을 얻은 존은 해변 구석진 곳 모래밭에서 몸을 쪽 뺀고서 공중부양을 연습했다. 가끔 그는 모래사장 위로 몇 인치 떠올랐지만 주변으로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는 스스로 시간을 맞추어 적절한 때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물에 부딪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번은 그의 아버지가 해변 구석에 이르는 길 중간까지 와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존?” 하고 물었다.

“아\_ 아무것도요.” 라고 존이 대답했다.

또 한 번은, 그의 엄마가 와서는 그가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을 거의 목격할 뻔했다. 그가 모래사장에서 2인치쯤 떠 있을 때 그의 엄마가 “점심 먹어라!” 라고 불렀다.

그는 엄마가 살금살금 다가온 게 아니라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둘러 내려왔다. 어떻게 링 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상어 등에 발을 못 박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것을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을까?

클레멘타인 섬의 문제는 그의 방 말고는 몸을 떠오르게 하는 실험할 만한 장소가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해변 후미진 곳은 절벽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고 부두 위는 평원만큼이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였다.

그날 밤 존은 부모님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랜드 오우 아프리에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방에 가서 침대 위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찼다. 바닥에서도, 어디에서도 좋았다. 아마 그는 누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는 서 있는 채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빨리 시도해보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다. 마침내, 8시 반이 되자 그는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시라고 말하고 하고 과자마를 입고 잠자리 기도를 드린 다음 침대에 올랐다.

그는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날 때까지 한 시간 동안 동전던지기를 계속 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잠들기 때문에 존은 두 분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존이 집중하자 그의 몸이 천천히 위로 떠올랐다. 지난 밤 배운 중요한 교훈을 바탕으로 도는 시간을 계산하며 신중하게 자신의 몸을 움직였다. 그는 곧 방 구석구석을 등 등 떠다니며 방향을 바꾸고 구르고 위 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였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기도 하고 옆구리에 붙여 놓기도 하면서 날아다녔다. 그는 손을 턱 아래 갖다 대더니 자신을 보고 웃어댔다. 링 우의 말이 맞았다. 그는 결코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콧노래를 흥얼대며, 존은 한 시간 가량 방 주변을 날아다녔고 침대로 다시 방향을 돌린 후 부드럽게 자신의 몸을 침대 매트리스로 착지시켰다. 내내 자신을 들어 올리느라 뇌가 약간 피곤한 듯 했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사실 존은 꽤나 기분 좋았다.

스맥스는 그의 비행을 지켜보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자신의 주인이 어딘가에 부딪치지만 않으면 그냥 기분 좋게 잠이나 잤다.

휴식을 취하면서 그는 창문 밖을 쳐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밖에는 바람이 그리 심하게 불지 않는 것 같았다. 클레멘타인에 강풍이 휘몰아치던 여느 밤과는 전혀 다른 밤이었다. 그리 쌀쌀하지도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창문을 쳐다보고선 스스로에게 끄덕였다.

*떠올라라*, 존, 그는 마음속으로 명령을 내리고 침대 밖으로 빠져 나와 열린 문을 향해 날아올랐다. 클레멘타인에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창문으로 지켜보는 이도 아무도 없었다. 존은 비둘기가 아치 아래로 펄럭거리며 날아가듯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다.

그날 밤 그가 클레멘타인 섬의 잔디밭을 원을 그리며 돌자 그의 파자마가 다리 사이로 산들바람에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나풀거렸다. 처음에는 지상에서 약 4 피트 정도를 유지하며 낮게 날다가 10 피트까지 고도를 높여갔다. 존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는 둥글게 뒤로 굴러 별을 쳐다보고는 건너편에 쓰리 패덤 솔 과 퍼시폰 리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하얀 거품을 내고 있었다. ‘나

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아이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최고의 선물을 준 링 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평소처럼 주변부를 비추는 클레멘타인의 등대 빛은 너무 높게 비춰서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포착할 수 없었다. 잔디 위라든가 아래 울퉁불퉁한 바위들과 바다 거품이 이는 절벽의 끝을 따라 늘 상 같은 곳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자 존은 좋은 생각이 났다 등대 꼭대기를 잠시만 날아갔다 오자. 그는 위로 오르고, 오르고 또 떠올라 160 피트 상공 등대 주변을 원을 그리며 돌았다. 등대 빛이 그의 발치를 통과하고 있었고 그때 그는 그 물속으로 다이빙하듯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만약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본다면. 그리고 유니스 존스 누나가 그를 본다면. 그들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힐 것이다.

그가 피곤하고 춥다고 느낄 때, 마치 창문이 공중부양 하는 이 작은 소년을 위해 만들어 진 듯 그는 창문을 미끄러지듯 통과해 부드럽게 하강했다.

너무 지쳐 기진맥진 했지만 행복한 존 제퍼스는 다음날 밤, 그 다음날 밤, 또 그 다음날 밤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바다 위를 떠다니며 이 오래된 퍼시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어찌면 다른 지역,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보이는 그곳까지 가 수 있을지 몰랐다.

## ~ 제 10장 ~

“어제 밤에는 나쁜 꿈을 꾸지 않았나?” 다음날, 아침식사 중에 존의 아버지가 물었다.

존은 그의 머리를 가로저었지만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었다. 그는 죄 짓는 느낌이었다. 그는 지난 밤 클레멘타인 섬 전체를 날아다녔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도 부모님에게 혹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가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그가 비밀을 발설한다면 용의 담즙이라든가 불타는 지푸라기를 코에 집어넣는다는 등의 처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등대의 창문과 렌즈를 닦을 때였다. 등대가 높은 곳에 있지만 바람결에 날아온 소금기가 낡은 전등 실에 있는 렌즈를 보호하는 창문에 달라붙어서 그들은 이틀에 한 번씩 창문을 닦아야 했다. 흰 수건을 사용해서 존은 탑의 아랫부분을, 아버지는 윗부분을 닦았다.

정각 9시에,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140 피트의 등대 내부를 지나 나머지 20 피트의 등대 외부를 두르는 사다리를 탔다. 존이 처음으로 몸이 몇 걸음 정도 위로 붕 뜬 것은 외벽을 닦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 제퍼스가 그의 바로 뒤에서 멈춰 섰다. 그는 어리둥절한 미소를 보였다. “내가 뭔가를 좀 본 것 같은데, 존. 그런데 네가 약간 떠있는 것 같았던 말이지.”

존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공중부양 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존의 몸이 공중부양 했다고 꼭 집어 말하지 않았다.

“잠깐 위로 튕 거였어요.” 그는 대답했다. 무슨 일이 일어 난거지?

“이런 계단에서 그런 장난은 매우 위험해.”

“다신 안 그럴게요.” 그의 공중부양 조절 능력이 사라 진건가? 링 우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결코 말한 적 없다. 그랬다면 그가 틀림없이 경고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존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이마의 미간을 풀어질 줄 몰랐다. 그는 고래를 가우똥 거리더니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은 위로 올라갔고, 존은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스스로 되뇌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는 상상에 빠진 게 아니었다. 갑자기 몸이 떠올라서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그도 놀랐다. 그는 분명히 스스로에게 몸이 뜨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뇌가 공중부양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잠식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무서운 생각 이었다

그는 링 우가 무언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게 기억났다. 그게 뭐였더라?

아무래도 그는 링 우와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봐야겠다. 그는 이 멋지고 놀라우며 감각적이면서 특별한 초감각적인 뇌세포를 사용하는 것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뇌세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그날 밤, 10시 반 즈음 제퍼스 부부가 깊은 잠이 들자, 존은 청바지와 두터운 울 셔츠를 입고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자신의 가장 따뜻한 재킷을 걸치고 빨간색 울 모자를 썼다. 그는 스텍스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는 몇 피트 공중부양해서 곧장 창문을 빠져 나와 밖으로 나갔다. 해변만 상공을 가로질러 퍼시폰 리프 앤 쓰리 페덤 솔을 향해 날아갔다.

해수면에서 30피트 정도로 유지하면서 그는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마 시속 10마일정도, 어쩌면 15마일 일지도. 바다는 큰 파도가 수면 위에서 노란색의 빛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부서지며 검은 불결들이 가득 넘실거리고 있었다. 이따금씩 존은 물고기가 해수면 아래서 헤엄치고 있을 때 반짝이는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뇌 대부분은 공중부양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약간의 고집스러운 뇌세포 몇 개는 비행 통제력에 대해 계속 걱정했다. 자신이 자기 뇌의 조종사가 맞는 걸까? 내가 내 자신의 항해사가 맞는 거겠지? 그러나 곧 그는 이런 불편한 질문들은 저만치 밀어두고 날아다니는 흥분감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비행의 순수한 즐거움, 독수리나 매가 되어보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와우” 하면 힘껏 소리쳤다.

불과 몇 분 안돼서 그는 퍼시폰에 도착했다. 바다에서 부는 파도에 의해 끊임 없이 씻겨 내려와 클레멘타인에서 몇 킬로미터 길이의 길고 좁은 산호초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그는 몇 분 허공에 머물렀지만 마땅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령도 없고 말이다.

북쪽으로 1/4 마일 더 들어가 쓰리 페덤 솔 안쪽으로 향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이 끓고 있었고 배의 바닥을 베어버릴 것 같은 위험한 바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때 그는 저 멀리서 깜박거리는 빛을 발견했다.

운 좋으면 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존은 탐험하고 싶은 유혹을 떨 칠 수 없었다. 그리 멀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특히나 밤에 바다를 건너야 하는 여정은 더 까다롭고, 반짝이는 불빛을 보니 몇 마일 더 서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았다.

존은 속도를 높이고 밑에서 물고기가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뒤에서 클레멘타인의 익숙한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매서운 북풍을 타고 날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한번은, 존은 서쪽으로 향해 퍼덕이며 날아가는 갈매기와 부딪칠 뻔 했다. 급히 방향을 바꾸며 ‘쩍’ 하고 성내던 갈매기가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존은 밤하늘을 비행할 땐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점차 가까워지자, 반짝이는 불빛에 그물이 밖에 걸린 고기잡이배가 드러났다. 남자들이 불빛이 비추는 갑판에서 일하고 있었다. 존은 상공에서 트롤선을 본격적으로 없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사실 너무 흥미로워서 존은 자신도 모르게 바람을 따라 돛대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고 그가 배 위를 지날 때 쓰고 있던 빨간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뭐지?” 갑판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더 이상의 소란은 없었지만 존은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갑자기 불빛이 그를 비쳤다. 그가 배 반대편 어둠 속으로 스치듯 지나갈 때 6명의 어부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놀란 얼굴을 보았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공중부양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링 우는 말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까? 존은 생각했다.

## ~ 제 11장 ~

존은 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크게 원을 한 바퀴 돌고는 클레멘타인으로 다시 향했다. 검푸른 어둠 속에서 돛대 부근을 떠다니며 어부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서.

클레멘타인 등대 빛은 여전히 강하게 비추지만 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을 퍼시폰과 쓰리 페덤으로 가도록 밀어주던 해변 바람이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내리치며 뒤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역풍에 맞으며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고 길을 재촉했지만 자신의 붉은 오두막집에 도착할 즈이면 녹초가 될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한 시간 후, 클레멘타인까지는 여전히 반마일이나 더 남아 있었지만 존은 거의 녹초가 되어있었다. 그는 자신의 뇌에 남은 이백만개의 뇌세포도 비행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존이 상공 30피트에서 10피트로 점차 미끄러지듯 내려가자, 수면의 물방울들이 그의 얼굴로 튕겨 뿌려졌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발은 동상에 걸린 듯 아무 감각이 없었다. 온 몸 구석구석 뼈마디가 아파왔다. 그는 앞으로 공중부양의 ‘공’ 자도 떠올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는 이리 먼 길을 날아왔을까?

그는 자신의 따뜻하고 포근한 이부자리와 부모님을 떠올렸다. 만약 자신의 뇌세포가 갑자기 공중부양에 실패한다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그의 눈물을 훔치며 뒤로 날려 보냈다.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도 소용없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존은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클레멘타인 언덕 부근까지 겨우겨우 날아올라 잔디밭에 착륙했다.

그는 잠시 동안 헐떡이며 가만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 오두막 자신의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는 창문으로 올라 침



대위로 기어들어가자 옴 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스맥스가 자신의 친구인 존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날 아침, 존의 엄마는 존이 외출복을 입은 채 노란색 펠리컨 이불 위에 널브러져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 ~ 제 12장 ~

존은 큰 곤경에 빠졌다. 지난 3일 동안, 뇌세포에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몇 번이나 공중부양을 해버렸다. 예고도 없이 일이 일어나서 그는 부모님이 알아차리기 전에 자기를 붙들어 둘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시 텔레파시로 링 우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다.

당장의 문제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뇌세포를 막는 일이었다. 그는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고 이윽고 깊은 바다 속 다이빙에 관한 『과플러 사이언스』 잡지의 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났다. 낚으로 된 무게 추를 이용해 잠수부를 해저 깊숙이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무게 추를 조약돌로 대체하면 어떨까? 존은 한 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점심 식사 직전에 존의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기 직전 갑자기 존은 2인치 정도 바닥에서 살짝 떠올랐고 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돌들도 달그락 소리를 냈다.

또 한 번 놀란 존의 아버지는 물었다.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살짝 튀어오른 것뿐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 조약돌을 더 많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존은 초조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크게 놀랐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팔짝 튀어오른다.

“참 재미있는 점프구나. 맹세컨대 넌 공중으로 솟아오른 것 같아. 한 번 더 해보렴.”

존의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높이 솟아올라 머리가 천장에 부딪치질 않기 기도하며 발끝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더니 6-7 인치 정도 높이 올랐다.

“정말 엄청나구나! 이렇게 하는 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니?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존, 배속에 가스가 가득 찬 거 아니니?”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존은 링 우의 가운데만큼이나 얼굴이 빨개졌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점프한 것뿐이에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존은 그의 부모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 챘다. 더 안 좋은 것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바지 속 조약돌들이 달그락 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소음의 근원지를 찾아 방 구석구석을 빙 둘러보자 “해변 구석에서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어요” 라고 실토했다.

존의 아버지는 “흠 ,” 하고 목소리를 다듬고는 곤란한 얼굴로 존의 엄마를 힐끗 쳐다봤다. 그의 어머니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운 표정이 비쳤다. 자신들의 9살 난 어린 아들이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존은 몸속에 풍선을 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근육 쪽의 문제일까? 아니면 신경계에 뭐가 있나? 정신적 문제로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점심식사 후에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자신을 날아가지 않게 할 더 많은 무게추가 필요하다. 부엌에서 냈던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문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존은 딸꾹질 소리를 냈다. 그가 “히끔” 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공중으로 몇 인치씩 떠올랐다.

존 제퍼스 부인은 남편을 불렀고 그들은 자신의 작은 아들이 개구리마냥 푸른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히끔” 하고 폴짝

“히끔” 하고 폴짝

“히끔” 하고 폴짝

“물품 공급 선박이 섬에 들어오며 얼른 존을 데리고 본토에 있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퍼스 부인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해요.” 남편도 동의했다.

존은 해변만으로 돌아가서 3개의 조약돌을 양쪽 주머니에 각각 더 넣었고 등대 발치에 있는 붉은 오두막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자신은 낮잠을 자야겠다고 말했다.

긴 오후 내내 긴급 텔레파시를 계속 전송했다. 존이 그토록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랐던 유령, 링 우와 연락하기 위해.

“저것 좀 봐요. 존은 5년간 한 번도 낮잠 자겠다고 먼저 말한 적이 없어요.” 존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다.

존이 주방에서 빠져나올 때 그는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큰 딸꾹질 “히익퍽!” 했고, 조약돌을 더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꿈치는 3인치나 뛰어올랐다.

제퍼스 부인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날 늦은 오후 이상한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 육군 항공대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며 날더니 약 2마일 떨어진 클레멘타인 서쪽으로 갔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담은 채로 존은 사다리는 타고 등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망원경으로 그것을 살펴보았다. 비행기는 P-36s로 프렛과 휘트니 트윈 웨스프 엔진이 탑재된 커티스 라이트 P-36s 기종이었다. 그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 ~ 제 13장 ~

다음날, 탑 플랫폼에서 망원경을 통해 급유 비행기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존은 작은 흰 배가 클레멘타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배의 안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그 배가 3명에서 4명 정도 사람이 탄 연안 경비대 선박이라는 것을 알았다. 증기 해양 지원 선이 들어올 때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선박이 바위섬에 방문할 때는 연례 등대 점검일 때뿐이다.

과도가 철썩거리자 배가 흰 물결을 타고 출렁거렸다. 존과 스맥스는 재빨리 사다리 타고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존의 아버지는 주방에 있었는데 매달 필요한 비식용 물품인 디젤 연료와 다른 물품을 포함해 기초 생활 용품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아빠, 연안 경비대 배가 오고 있어요.” 존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쓰던 펜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함께 해변 가로 걸어갔고 스맥스가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그 앞을 즐겁게 뛰어 갔다. 방문객들은 언제나 환영이다.

배는 일반 시민 한 명과 두 명의 항해 선원을 포함해 3명의 대원이 타고 있었다. 선원들이 배를 부두에 정박하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과 일반인은 배에서 내려왔다. 연안 경비대 중위가 자신 소개를 하고 이후 나머지 두 대원과 그 시민 한 명을 이어 소개했다. 각각 소령은 육군 정보국, 해군 소령은 해군 정보국, 그 일반 시민은 미 연방 수사국 FBI 소속이었다. 존은 한 번도 그 기관을 본 적 없지만 라디오에서 FBI 쇼를 자주 들었었다. 지금 여기에 진짜 FBI 대원이 있는 것이다.

존은 그의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이 대단한 정보국 사람들이 외딴 클레멘타인 바위섬에 무슨 볼일이 있던 말인가? 존도 같은 생각을 했다.

소령은 말했다. “갑판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존의 아버지는 말했다. “그럼요. 주방으로 가지죠. 커피 마시면서 하시죠.” 아버지가 앞장섰고 그 뒤를 존과 스맥스, 또 그 뒤를 정보국 사람들이 따라왔다.

존은 FBI 요원과 이야기하고 혹시 밀수꾼과 총격전을 벌인 적 있는 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퍼스 부인이 커피를 타는 동안 모두들 오크 나무로 만든 오래된 테이블에 앉았고 그녀가 갓 구운 애플파이를 곁들이겠느냐고 물었다. 만약 정보국 대원들이 거절한다면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갓 구운 파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군 소령은 그녀에게 미소 짓고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부인.” 말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목요일 밤 쓰리 패덤 숲에서 약 3/4마일 떨어진 곳, 아마 1마일쯤 대략 11시 방향에 고기잡이 트롤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은 일급 기밀사항입니다.”

존의 입은 떡 벌어지고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한 비행 물체가 그 배 위를 지나 한 바퀴 원을 그리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8명중 6명의 선원이 그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큰 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앞으로 제가 할 얘기를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비행 물체는 인간이고, 그는 날개도 모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존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 날개나 엔진 없이 하늘을 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비행 물체가 정말로 인간이거나, 인간이 아닌 화성인이라면, 미국은 중차대한 안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존은 땅속으로 굴을 파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님은 물론 우리 군 대령님들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날개나 모터 없이 누군가가 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만에 하나 그 비밀이 밖으로 퍼져나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영공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외국 적군들이 라이플

과 수류탄을 각각 들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존은 밖으로 뛰어나가 잔디밭에서 이 울렁이는 속을 토해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 계속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수요일 아침, 육해공군 부대는 전투중대를 보내 어부들이 비행 물체를 보았던 지역을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하고 있던 게 그것이었던 말이야? 나를 찾고 있었다고?’ 등골이 서늘해지며 생각했다. 존은 사실대로 말할까 하고 생각했다. 잘못을 빌까? 다시는 공중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까? 그러면 코에 불타는 짚을 집어넣는 벌을 받는 걸까?

“지금, 제가 여러분, 재판장님, 제퍼스 부인, 그리고 어린 친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혹시 여기서 항공물체와 비슷하게 생긴 인간이나 화성인 같은 걸 본 적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제퍼스는 고개를 절레 흔들며 “아니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제퍼스 부인도 “맙소사,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제 모든 눈이 존에게 쏠렸고, 존은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다. 팔팔 끓어대는 용의 담즙 속이라든가 불타는 지푸라기로 코를 막거나 발을 상어 등에 못질한다든가? 그는 말했다. “화요일 밤 내내 거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이었고 해군 소령도 그때 그렇게 넘어갔다. 그가 나중에 127cm 24kg밖에 안 나가는 9살짜리 소년을 철창에 집어넣는 건 아닐까? 그는 떠돌아다니는 유령인 마술사에 했던 공중부양 요청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 ~ 제 14장 ~

어른들이 애플파이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존은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FBI 요원이 말했다. “우리는 그 어부들을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 스위트 룸 3개에서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문 밖을 지키고 있고요.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육군 중령은 말했다.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간에 화성에서 온 침입자를 붙잡을 수 있을까?”

존은 ‘화성 침입자 같은 건 없어요. 그건 저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입이 바짝 말랐지만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FBI요원이 말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증거는 트롤선 갑판으로 떨어진 빨간색 울 모자뿐입니다. 모자 안쪽에는 아무 라벨도 없습니다. 모자는 수요일 워싱턴 본사로 보내져 우리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이지만 화성인이 빨간색 울 모자를 쓸 것 같지 않네요.”

존은 그 모자에 레벨이 없었는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나저나 라벨이 있다면 FBI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걸까?

만약 요원들이 떠날 때까지 갑자기 공중부양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면, 그는 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린 상황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링 우가 어디에 있던 지 간에 무조건 찾아내 연락을 취해서 몸이 날아오르는 것을 영원히 멈추게 할 것이다.

결코 다시는 몸이 날아오르게 하지 않을 테다. 절대로. 다시 지루하고 외롭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몸이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가 말했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체계를 명백하게 어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



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12살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감옥이 있는 것일까?

섬을 떠나기 전에 육군 중령이 말했다. “하늘을 계속 유심히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의심스러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면 즉각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백악관에 본사를 둔 비행물체 작전부의 특수 지휘 번호를 부모님께 남겼다.

존의 아버지는 말했다. “여기에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저는 보통 모스 코드로 긴급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안 경비대 중령은 자신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클레멘타인에서 온 어떠한 연락이라도 정보국 국장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존은 이 의문의 비행물체라는 것을 잡기 위한 모든 노력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가 『과플러 사이언스』 잡지에서 읽었던 그 어떤 사건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부두에 매어져 있던 줄이 풀리고 배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 지금이라도 그의 부모님께 떠돌아다니는 유령인 중국인 마술사에게 공중부양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떨까 궁금했다. 부모님은 이미 자신들은 유령의 존재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존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공중부양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시킬게 뻔했다. 거기 사람들은 그를 침대에 묶어두어야 할 것이다. 그 침대가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는 링 우가 존재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맹세를 분명히 기억한다.

아니야,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그 마법사와 연락을 취하고 자신의 뇌 세포 신호체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담은 채로 살거나 허리둘레에 잠수용 납 벨트를 찬 채 평생 살아야 한다면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즐겁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링 우 라면 분명히 해결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존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대답도 없는 링 우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해변 구석 부근을 서성이고 있었다. 어쩌면 그 마술사는 결국 저 세상으로 떠나버려서 다시는 현실 세계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중

국으로 다시 떠나버렸을 수도 있다.

점심식사 후에 존은 해변구석으로 다시 돌아와 작은 어선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를 부르며 온 힘을 쏟아 붓고 있었다. 링 우 마술사님, 존 제퍼스예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제발요! 제발! 이걸 생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저녁식사 후에 그는 부모님과 함께 *그랜드 오우 아프리* 프로그램을 듣는 척했지만 사실은 텔레파시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 잠잘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링 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 그의 부모님 모두 잠이 들었다고 확신이 들자 그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해변 만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밖으로 향했다.

그는 밤 9시가 지난 후에 라디오 전파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읽은 적 있다. 따라서 밤에 텔레파시를 보낸다면 방해 전파가 더 적을 것이다.

그가 어두운 부엌을 지나칠 때 그는 자신의 머리 안에서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을 느꼈고 곧장 위로 솟아올랐다. 그의 머리가 조명 기구 근처 천장에 뒤집어서 달라붙어 주머니에 있던 돌들이 낡은 오크 테이블로 떨어졌다.

스맥스가 쿵쿵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이 야단법석을 듣고 그의 부모님은 피자마 차림으로 침실에서 나와 한달음에 도착했다. 그들은 불을 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따뜻한 옷과 녹색 울 모자를 입고서 머리가 뒤집어진 채 나비처럼 팔딱팔딱 거리는 것을 보았다.

~ 제 15장 ~

너무 놀라 얼굴이 새파래진 존의 아버지는 존을 천장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발판사다리를 가져왔다. 공중부양은 너무 강력해서 존은 움짱달짝 할 수 없었다. “몸에 접촉제라도 발라 놓은 거니?” 존의 아버지가 물었다.

존이 말했다. “아니요. 아빠.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존의 아버지가 존을 천장에서 떼어내기 위해 씨름하는 광경을 보면서 존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있는 의자에 털썩 하고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마침내 존을 밑으로 끌어내리고서 물었다. “다리를 테이블 밑으로 밀어 넣지 그러니? 아들아, 그래야 네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간이 창고로 가서 연단이라고 불리는 해양 페인트 두 통을 가지고 돌아와서 존에게 이것을 그의 무릎 위에 두라고 말했다. 족히 2 온스 무게를 가진 두 페인트 통이 존의 체중을 눌렀다.

“바닥짐은 배와 공중 부양하는 소년에게 딱 이지.”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세 사람 모두가 말없이 앉았고 클레멘타인 등대의 반사 빛이 창문을 통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존은 속이 울렁거렸다.

마침내, 존의 아버지는 말했다. “존,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단다. 엄마와 아빠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링 우의 무시무시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존은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다. 물론 어떻게 실제로 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빼고 말이다. 그것만큼은 비밀로 부쳐야 했다. 커피와 핫 초콜릿을 타는 시간을 빼고 약 2시간 동안

그는 『파퓰러 사이언스』 잡지에서 텔레파시에 관한 기사를 읽은 것부터 시작해서 카치아토레 로마를 넘어 날아갔던 화요일 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줬다. 스텍스는 이미 한참 전에 골아 떨어졌다.

“그래서, 고기잡이배에 떨어졌다는 게 너의 빨간 모자란 말이지?”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존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퍼스 부부가 가장 믿기 힘들었던 부분은 1950년에 죽은 이후로 계속 맴돌고 있다는 링 우 라는 이름의 중국인 마술사 이야기였다.

부모님은 링 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제퍼스 부인은 존이 기계에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늘을 나는 최초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고 대통령에서부터 특히 과학자들, FBI에 이르기까지 링 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했다.

존은 말했다. “저는 링 우 마술사님과 연락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마술사님은 대답이 없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 무언가로 놀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만약 내가 무게 추를 잃어버리면 우주 끝까지 솟아올라 가 버릴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보자” 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떤 의사?” 아버지가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의 말이에요.”

존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부모님은 공주부양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존의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정확히 어떻게 날 수 있게 된 거야?”

“아들아, 엄마 아빠에게 말해줘야 해.”

존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링 우 마법사님이 불타는 지푸라기로 코 속

에 집어넣고 상어의 등에 발을 못질하겠다고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던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어디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니?” 아버지가 화난 어조로 말했다.

“상어도 봤어요, 아빠. 링 우 마법사님이 지푸라기를 만드는 것도요. 그는 마술사여서 뭐든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는 저를 사라지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졌다는 듯이 말했다. “글쎄, 나는 정보국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우리가 최소한 화성인 침공의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말했다. “존, 펜과 메모지를 가져다주겠니?”

그는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반에 걸쳐 몇 장의 종이를 찢고 또 찢으며 글을 적으려고 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이 모든 일은 네가 한 일이잖니, 존. 그러니 네가 글을 써야 할 것 같다.”

존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대통령님께, 화성인은 미국을 침공하지 않을 거예요. 9살 난 나의 아들 존이 공중부양 하는 방법을 배우고 화요일 밤 트롤선 위로 날아갔습니다. 존경을 담아 존 제퍼스, 미 연안 경비대 1등 수병과 제임스 제퍼스와 마벨 제퍼스 드림.* 아버지는 존이 쓴 글을 읽고 말했다. “잘 썼구나. 너는 앞으로 많은 질문에 답해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등대로 가서 계단을 오르고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선 통신을 이용해 문명 세계로 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 글을 모스 부호로 전송했다.

이윽고 존의 아버지는 존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연단 페인트 두 통에 묶여 있어서 깊이 잠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존의 아버지는 그를 이불과 침대보 사이로 집어 놓고서는 아래로 누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집에 있는 안전핀을 모두 가지고 와 존을 이불 사이에 누워 있도록 핀으로 고정시켰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지 않기를 바랐다. 만

약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었다.

## ~ 제 16장 ~

갑판장 제퍼스는 뒤에 남아 클레멘타인 등대지기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존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엄연한 존의 가족인 스맥스는 일전에 정보국 요원들이 타고 온 그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향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도 함께였다.: 뒤층에 권총을 찬 채 선실에 있는 두 명의 선원, 그리고 고성능 라이플을 비스듬히 찬 채 서 있는 선원이 그들이다. 미 정부는 존 제퍼스가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게 둘 수 없었다.

옆구리에 페인트 통을 단 채 어머니와 객실에 앉아 있던 존은 병원이 아니라 마치 감옥으로 잡혀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지난 밤, 존의 아버지는 연안 경비대에게 의료적 치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또 다른 모스 코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의 직속 상사로부터 제정신이냐며 상세한 서면 보고서를 보내라는 다소 무례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관련 정보국 직원들은 그의 아들이 모터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났다고 적혀있다. 14년간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그의 역사상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거의 반역죄나 다름없는 죄목으로

배가 도착했을 때 연안 수비대 중령, 육군 소령, 해군 소령, 그리고 FBI요원이 모두 샌프란시스코의 엠바카데로 연안 경비대 부두에서 존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맥스가 평소대로 꼬리를 흔들며 먼저 뛰어내리자 제퍼스 부인이 스맥스가 쫓지 못하도록 막았다.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연단 페인트 통을 달고 있는 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못마땅한 것을 넘어서 거의 화나 보였다. 이 맹랑한 꼬마가 자신들을 속이고 바보로 만들었던 말이지?

육군 소령은 적대감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네가 기계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존의 양손에 각각 든 페인트 통에 시선을 두더니 물어보았다.

“그 양동이들은 뭐니?”

존은 대답했다. “제 닳아요. 이게 없으면 저는 달나라로 까지 날아가 버릴 거예요.” 존은 예전에는 도시에 오는 게 즐거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짓궂은 비웃음이 이어지더니 화난 표정의 요원 한 명이 말했다. “그래, 한번 보여줘 봐!”

‘두 눈 푹푹히 뜨라고.’ 존은 생각했다.

“만약 네가 정말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경우라면 -물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여기 부두에서 그걸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천장 구석에 부딪치지 않도록 줄 하나를 발목에 묶어두셔야 해요.” 그가 덧붙였다.

육군 소령은 유니스 누나가 예견한 대로 그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이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다.”

대원들은 존과 그의 어머니, 스텍스와 다른 경호원들과는 다른 차를 타고 이동하여 한 고등학교에서 내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존은 자신이 체포되는 기분이었다.

모두가 학교 체육관에 들어간 후에 총을 찬 경호원들이 하늘을 나는 테스트의 비밀이 못 빠져나가도록 정문에서 지키고 서 있었다. 심지어 학교 관리인도 밖으로 보냈다.

연안 경비대 중령은 38인치의 노란색 끈을 존의 오른쪽 발목에 묶었다. 총 50피트 되는 길이였다.

FBI 요원은 한 명의 사진사를 불러왔고 그는 “이건 내가 했던 일 중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존은 말했다. “준비 됐어요?”

“그래” 해군 소령이 말했다.

“그래” 다른 사람들도 말했다.



존이 페인트 통을 내려놓자 서서히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육군 중령이 말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소령이 말했다. “내가 지금…”

FBI요원이 말했다. “내가 지금…”

존은 발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웃으며 내려다보고 줄이 뺨을 수 있는 한 멀리 그리고 높이 체육관 주변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몇 번 공중 다이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육군 중령에게 자신을 밀어로 내려달라고 말했다. 사진사는 줌과 FBI요원이 함께 있는 사진을 한 장 찍었다.

히람 K. 포브스라는 이름의 그 요원은 말했다. “대통령님께 이 사실을 보고 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육군 대령은 레터맨 병원으로 전화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포브스 요원이 말했다. “명령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해라.”

“비밀이에요. 나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존은 확고히 말했다.

그 요원은 존의 어머니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대통령님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아드님은 큰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끼며 제퍼스 부인은 말했다. “말도 안돼요.”

포브스 요원은 말했다. “됩니다.”

## ~ 제 17장 ~

미국 전역은 아닐지라도 최소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최고 뇌 전문 외과의사 레온 부크테헤더 박사는 두꺼운 렌즈의 노란색 플라스틱 테를 두른 안경을 껴고 코가 크고 머리숱이 많았다. 머리카락은 문어 잉크처럼 아주 까맣지만 턱수염은 이와 대조적으로 희었다.

부크테헤더 박사는 링 우와의 만남과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존에게 듣고 나서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는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존이 끝내 대답을 거부하자 진심 짜증냈다.

그에 반해 존은 백체, 회백체, 숨골, 뇌각 등과 같은 단어들이 붙여진 색칠된 인간 두개골 그림을 보고 있었다.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그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부크테헤더 박사는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군사 공원인 유명한 프레시디오를 조금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나는 다음 주에 너의 뇌를 엑스레이 찍을 수 있고 저 멀리 보스턴에 있는 네 친구들과 상담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존의 희망이 쓰리 페덤 숲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이건 내가 말았던 일 중 가장 이상하고 어려운 일이야. 나는 네 두개골을 열어 그 답을 찾아보고 싶어, 제퍼스 군. 내 생각에는 뇌와 관련 있는 게 분명해.”

‘박사님의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뇌세포. 수백만 개의 뇌세포들.’ 존은 생각했다.

존의 어머니는 말했다. “정신 차릴 수가 없네요.”

존은 자신의 두개골이 열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 어느 때보다 링우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이 페인트 통을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운 일

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이 연단 페인트 통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다.

누군가 문을 노크했고, 이후 FBI요원이 고개를 안으로 살짝 내밀었다. “제퍼슨군, 미합중국 대통령님께서 자네가 워싱턴 D.C.로 방문해주길 바라네. 지금 즉시 말이야. 대통령님은 모터 없이 하늘을 나는 소년과 함께 사진을 찍은 최초의 인물이 되고 싶어 하시거든.”

제퍼슨 군이라고? 한 시간 전만 해도 존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그저 바보같은 꼬마가 아니었는가? 이제 대통령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존은 포브스 요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나와 사진을 찍은 맨 처음 사람이잖아요.”

포브스 요원이 말했다. “네가 그 사진에 대해 잊어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대통령님께는 말하지 마렴. 자, 이제 서둘러야 해. 비행기 이륙 준비가 다 끝났다.”

존이 말했다. “우리 아빠는요? 아빠도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연안 경비대 중령이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데려올 시간이 없단다. 다른 사람과 교대해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내일 네 아버지를 비행기로 데리고 오마. 이젠 온 세상이 뒤집어질 사건이야.”

존은 말했다. “전 엄마랑 스맥스랑 꼭 같이 가야해요.”

포브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크테헤더 박사에게 말했다. “이 꼬마 환자를 며칠 후에 다시 데려오죠.”

박사는 활짝 미소 지었다. 자신이 맡았던 환자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은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루스벨트 대통령님께 내 이름 언급하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나서 존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계속 하늘을 날면서 동시에 네 의지대로 뜨고 착지할 수 있는 조절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할거야. 내가 약속하지. 밤낮으로 말이야!” 그는 뒤의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존과 악수하고 존의 어머니 마블 여사의 볼에 키스를 했다. 심지에 몸을 숙여 스맥스에게 토탕토탕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원래 있던 보디가드들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호위까지 받

왔다.

존도 그의 엄마도, 아마 스맥스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 그리고 보니 존은 자기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걸로 된 거다. 곧 그들은 해군 쌍발 엔진이 탑재된 DC-3 비행기를 타고 상공 1만 피트에서 동쪽으로 비행하고 있다.

그랜드캐니언 상공 위를 지날 때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존은 이제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는 이제 워싱턴에서 티베트까지 세계적 유명인사가 될 일만 남았다.

강한 역풍에 흔들거리며 DC-3 비행기는 새벽 4시경 애너코스티어 해군 항공 부대에 착륙하기 전 두 번 재급유해야 했다. 포브스 요원은 말했다. “장담컨대 오늘 새벽 너는 링컨 침실에서 잠자게 될 거야.” 존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 들어봤어도 백악관에 있는 링컨 침대는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너는 대통령 내외분과 아침 식사를 하게 될 거야.”

“아저씨도 같이 먹나요?”

“그렇지 못할 거야. 만약 누군가가 너와 내가 함께 사진 찍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난 아마 아칸소 주로 좌천 될 거야.”

존은 히람 K 포브스 아저씨가 좋아지기 해서 이렇게 말했다. “비밀 지킬게요. 그렇지만 대통령님께도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포브스 요원은 한숨짓고는 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악수 했다. 그 때 백악관 직원들이 모터 없이 하늘을 나는 최초의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DC-3비행기 하선 계단으로 달려갔다.

포브스 요원이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국정원 요원이 돌봐줄 거라고 말했다. 존은 『파플러 사이언스』에서 안기부요원에 대한 글을 읽은 적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그들은 심지어 대통령이 한 입 먹기 전에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것까지 지켜봤다.

두 명의 엄해 보이는 안기부 요원들이 함께 리무진을 탔고 존은 다른 두 개의 차를 발견했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탄 두 차는 하나는 앞에서 다른 하나는 뒤에서 따라붙었다. ‘화성인이라 해도 이런 경호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존은 생각했다.

곧 존의 어머니와 존, 그리고 스맥스는 백악관에 입성했고 링컨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요깃거리를 대접받았다. 제퍼스 부인은 말했다. 내 생애 이 네브래스카 시골 소녀가 링컨 부부가 잠자던 곳에서 자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잠시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바로 존의 어머니가 백악관에 있는 안전핀을 모두 구해다 줄 수 있겠냐고 요청할 때였다.

스맥스에게도 다른 의미로 기진맥진한 날이었다. 그래서 스맥스는 존과 존의 어머니 사이로 경충 뛰어올라갔고, 아마도 링컨과 그의 부인 마리 토드가 함께 수많은 밤을 보냈던 그 환상적인 침대에서 팔자 좋게 늘어진 최초의 네발 달린 동물일 것이다.

존은 매트리스가 딱딱하다고 생각했다. 이걸 진품이야?

## ~ 제 18장 ~

존은 루스벨트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연대기 잡지에서 봤었고 부모님이 새로 산 필코 라디오를 통해 일요일 밤마다 그 유명한 “화롯가 한담” 을 들었었다. 존 가족은 그 프로그램을 매주 들어서 마치 교회 가는 것 같았다.

그는 또한 부모님이 그를 데려간 미국 본토 영화관 어디서든 뉴스극장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다. 대통령은 멋진 미소를 보이며 테가 없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미국인들 모두에 관심 갖는 것 같았다.

존은 루스벨트 영부인의 대해서 많이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녀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폭스 무비톤 뉴스에서 애플래치아라 불리는 미국의 가난한 지역을 둘러보던 그녀를 본 기억이 났다. 존의 엄마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다. “그녀는 다른 영부인과 달라. 화려하게 꾸미지 않거든. 저 수수한 드레스와 작은 모자를 보렴.”

그리고 존은 지금 여기 백악관에 왔고 곧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를 만날 것이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존은 등대 상공과 카시아코르 로마 위를 날아다니 모험과 중국인 마술사와 관련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지 들려주었지만 지금도 그가 실제로 어떻게 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공중부양 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한 것만 뻔다면 나머지는 다 말해도 링 우가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것에 대해 말한다면 불타는 지푸라기와 상어를 소환할 것이다.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해군과 연안 수비대를 책임지는 제독들과 육군과 공군을 책임지는 장군들도 아침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미합중국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고 모터 없이 하늘을 나는 사람은 국가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FBI 책임자 또한 자리에 함께 했다. 그는 얼굴은 불도그처럼, 몸매는 작은 흑

멧돼지를 닮았다. 그의 이름은 후버였다.

대통령은 존의 몸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존이 페인트 통을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신경계 전문 외과의사 레온 부크터헤데 박사가 해결책을 곧 찾을 거라고 확신시켜줬다. 존은 결단코 그의 남은 생을 몇 겹 런이나 되는 페인트 통을 짊어지며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존과 그의 어머니는 대통령 내외의 맞은편에 앉았다. 스맥스는 주방에서 준비해 준 사료를 먹으며 테이블 밑에 자리했다. 모든 사람들이 존과 그의 엄마에게 대하듯 스맥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대통령은 말했다. “그래, 존, 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어야 한단다.”

“죄송하지만, 대통령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절대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존, 이 방에서 너의 비밀이 새어나갈 일은 없단다.” 대통령이 회유했다.

해군 제독이 고집스럽게 거들었다. “말해라.”

육군 장군이 말했다. “그래야지.”

후버라는 이름의 FBI 책임자는 으박질렀다. “꼬마야, 말해. 그렇지 않으면……”

루스벨트 영부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만 하세요. 여보.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요. 존은 이제 겨우 9살 소년일 뿐이에요.”

“당신 말이 맞소, 엘리노어,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상의할 수 있지.”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존을 보고 씩 웃었다. “네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구나.”

“나도 그래.” 루스벨트 부인이 말했다.

제독들도 장군들도, 후버 대령까지 신호를 두 사람의 신호를 눈치 채고 자신들도 빨리 보고 싶다고 말을 맞췄다.

“전 세계가 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200개가 넘는 신문기자와 라디오 기자들, 사진사들이 네가 모터 없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 10시 30분에 잔디밭에 모일거야. 영화 뉴스 관계자들도 거기에 있을 거고. 너는 3일 동안 미국 모든 영화관 스크린에 등장하게 될 거야. 해외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말했다.

연안 경비대 제독은 말했다. “내 연안 경비대 대원 아들 중 한 명이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다니 감개무량하구나.”

그때부터 존은 하늘을 날게 하는 자신의 뇌세포가 오늘 아침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일에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는 갑자기 매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영부인이 말했다. “자, 그럼 식사는 다 마치신 것 같으니, 저는 존을 데리고 백악관을 구경시켜 줄게요. 존의 역사적인 순간에 앞서 제 남편이 잔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존, 그의 어머니, 그리고 스텝은 그녀를 따라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 적 없는 방을 소개시켜 주었다. 존의 어머니는 그에게 귓속말로 “대통령님에게만 살짝 날 수 있는 비밀을 말해주렴.”

두 양동이와 그의 무릎에 부딪치며 그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럴 수 없어요.” 상어에 못 박히는 심정을 어머니가 어떻게 알까?

대통령이 주된 업무를 보고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 집무실을 끝으로 백악관 구경이 끝났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웃으며 물었다. “존, 이제 어떻게 날 수 있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겠니?”

“화장실 좀 갈수 있을까요? 존은 불쑥 대답하고는 깜짝 놀랐다. 확실히 미국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들은 대답 중 가장 멍청한 대답이었음이 틀림없다. 후버 국장이 존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와서 존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는 으르렁거리듯 협박했다. “너는 대통령님께 하늘을 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평생 감옥에 집어넣어 버릴 거거든.”

“아아아아!” 존이 소리쳤다.

때마침 연안 경비대 제독이 들어왔고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대체 뭐 하는 건가? 존 애드거 국장?”



후버 국장은 연안 경비대 제독에게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러시안 공사주의 자 요원이 이 아이를 납치할 수도 있습니다.”

연안 경비대 제독이 말했다. “꼭이나, 경찰 보트를 보내 등대를 밤낮으로 지키게 할 거야.”

## ~ 제 19장 ~

기자들은 이미 8시부터 백악관 잔디밭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을 때 이미 전 세계에서 온 특파원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통령과 영부인, 존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존이 앉을 의자 맞은편에 수많은 카메라, 마이크, 신문기자들이 몰렸다. 백악관 도우미가 스맥스를 가죽 끈으로 붙잡고 있었다.

대통령은 존과 그의 부모님, 스맥스를 돌아가며 소개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존은 여섯 번째인지 일곱 번째인지 모를 링 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서 존은 그가 어떻게 날게 되었는지를 제외하고 질문에 답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보 비서가 앞으로 나아가 존에게 하늘을 나는 것을 시연을 해보라고 하기 전 초반 15분간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

양동이를 붙잡은 채 존은 언론 수석이 50 피트 길이 노란색 줄의 한쪽 끝을 그의 발목에 묶고, 나머지 끝을 모루 대에 묶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관중들이 사이에 너무 적막감이 흘러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까마귀 울음소리 밖에 없었다. 공보 비서가 속삭였다. “이 모루 대는 언젠가 역사적 기념비가 될 거야.

존은 눈을 감고 5억 개의 뇌세포에게 자신을 들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바닥짐 같은 양동이를 내려놓고 많은 관객 앞에서 우~ 와 아~ 소리를 내며 로켓처럼 하늘로 솟았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잔디밭 구석구석까지 날아다녔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사진도 찍었다. 유럽에 최근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조나단 제퍼스는 다음날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존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드디어 함께 참석하게 된 존의 아버지는 함께 관광하며 6일을 워싱턴에 더 머물렀다. 몇 몇 신발 장인들은 존에게 납 밑창으로 만든 신발을 선물하겠다고 했지만 존은 특히나 자기의 몸무게가 24kg밖에 안 된다

는 것을 감안하면 양쪽 발에 12kg나 되는 납을 달고 다니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존은 부크테헤데 박사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그때 동안만 양동이를 계속 들고 다니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는 본의 아니게 발달된 자신의 어깨 근육이 썩 마음에 들었다.

존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을 때 취재진과 히람.K.포브스를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반기기 위해 모여 있었다. 포브스는 결국 아소칸 주로 좌천되지 않았다. 존과 그가 함께 찍은 사진은 비밀로 남아있고 현재 백악관 바깥 직원들의 눈을 피해 बैं크 오브 아메리카 주요 지사은행 보안금고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다.

급히 퍼레이드가 준비되었다. 존은 오픈 캐딜락 뒷자리에 앉아서 마켓 거리를 따라 모여 있는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마치 린드버그가 8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장 집무실에서 연회가 열렸고 존은 도시로 오는 열쇠를 받았다. 연안 경비대 중령은 오찬회에서 그에게 거수경례했다. 마크 홉킨스 호텔에서 저녁 만찬이 마련됐고 시내 유명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부크테헤데 박사도 있었고 존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나를 만나러 오거라.”

다음날, 부크테헤더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존과 그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존 가족이 들어올 때 그는 밝은 미소를 보이고 돌아가며 악수했다. 그리고 곧 몇 날 며칠을 보스턴에서 런던에 이르기까지 그의 동료들과 끝없이 상의했지만 그는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음을 시인했다.

제퍼스 부인은 절규했다. “안 돼, 안돼요.”

“그러나, 존 너의 두개골을 열기 전 한 가지 희망은 있단다. 그저께 밤에 나는 파고다 영화관 무대 뒤에서 슈 밉이라는 이름의 나이 많은 중국인 마술사를 만났어. 영어로 ‘밝게 말하다’ 라는 뜻이라는 구나. 그는 링 우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연락 방법은 모르더구나.”

제퍼스 부인은 절망스럽게 말했다. “그 남자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죠?”

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쪽지에 적어왔다. 슈 밉은 네 문제의 치유법이 있는데 그것은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더구나. 그가 말하길 너는 비단인어의 비늘, 무시무시한 곰 발톱의 때, 코크몽의 위대한

송배자의 눈물을 섞어 만든 것을 먹어야 한다고 한단다.”

존의 어머니는 경악하며 물었다. “물고기 비늘이요?”

존의 아버지는 물었다. “그것들은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구해오죠.”

부크테헤데 박사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다. “잠시만!” 그는 자신의 쪽지를 계속 설명했다. “2천 년 전에, 신성한 비단 잉어는 이단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금지된 도시의 연못으로 옮겨졌습니다.”

‘저 단어가 또 나왔네,’ 존은 생각했다.

티베트에 있는 탕글라 산기슭에 있는 태양 달 호수 속 깊고 차가운 물속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포악한 곰은요?” 존이 물었다.

“그 곰은 태양 달 호수에서 멀지 않은 산 속 동굴에 있단다.”

“코크몽의 위대한 송배자는요?”

부크테헤더 박사는 안경을 벗었다. 그는 존처럼 매우 따뜻한 갈색 눈을 가졌다. “그는 남 중국 해 가까이에 있다. 물론 코크몽 섬에 말이죠.”

“일단 그곳에 가면 어떻게 비단잉어의 비늘, 곰의 발톱 때, 코크몽 송배자의 눈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존의 아버지가 물었다.

“슈 밍이 말하기를 오직 링 우만이 그것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가 말했다.

존의 희망이 사라졌다. 존은 전 세계에 링 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 줬다. 그는 딱 하나만 빼고 그와 했던 모든 맹세를 어겼다. 자신은 링 우가 말했던 모든 끔찍한 벌을 받아도 싸다. 만약 존이 그 마술사가 어디에 있는 소환할 수만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닭대가리 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 9살 짜리 이단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링 우에게 비는 것밖에 없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은 부크테헤데 박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친절한 신경학계 외과의사인 부크테헤데 박사는 대답했다. “네가 그 마술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저도 그래요.” 앞으로 남은 평생을 연단 페인트 통을 달고 다니든지 납 밑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며 존이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5일 후,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표정의 제퍼스 부부와 스맥스는 연안 경비대 선착장에 가서 클레멘타인 등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증기선에 몸을 실었다.

증기선에는 커다란 한 자루의 편지더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퍼스 부부의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자신들이 등대 섬 집에 가서 지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내용의 편지들이었다. 존의 아버지는 소리쳤다. “다들 미친 거 아냐? 우리 집 테이블은 4인용이라고!”

수백 개의 편지는 존에게 쓴 것이었다. 모두가 존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심지어는 유니스 누나에게서 온 것도 있었다.: *너 완전히 유명해졌어! 내 낡은 방에서 잠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 유령들에게 도움을 받은 게 분명해. 가서 너와 얘기를 해 봐야겠어.*

## ~ 제 20장 ~

돌아오는 길에 배는 파도가 부드럽게 부서지는 차갑고 푸른 바다를 따라 넘실거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제퍼스 부부는 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어머니는 망설이듯 말을 꺼냈다. “아들아, 우리는 너의 상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단다. 그게 얼마나 큰지도.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혹시나…….”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크게 한번 호흡하고 말했다. “혹시 네가 링 우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스스로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가르쳐준 게 아닐까?”

무거운 얼굴로 존의 아버지는 그녀의 생각을 이어갔다. “이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걸 좀……”

존은 고개를 가로 지으며 말했다. “링 우는 분명히 있어요, 믿어달란 말이에요!”

제퍼스 부부는 침묵에 빠졌다. 좌절감을 느끼며 그들은 부두를 내려다봤다. 자신들의 외동아들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마도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 같다.

머지않아 배는 부두에 도착했다. 배가 오래된 외로움 가득했던 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의 그 변함없던 클레멘타인 섬에 닿기를 바라며, 존은 좌석에 묶고 있던 줄을 풀고 다시 한 번 양동이를 잡고 부두로 경충 뛰어내리는 스맥스를 따라 내려갔다.

카키아토레 로마 위를 비행했던 밤, 히만.K.포브스, 루스벨트 대통령 부부, 백악관 잔디밭에서의 일, 부크테헤데 박사와의 기억들이 존의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했다.

그 후 32일 동안, 존은 연단 페인트 통을 가지고 다니며 터벅터벅 해변만으로 54걸음 걸어가 링 우를 소환해내려 했다. 그는 이 동떨어진 해변만은 텔레파시

신호를 그 위대한 마술사에 닿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는 또한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등대의 내 외부 155계단을 10계단 마다 쉬면서 올라갔다. 아마도 링 우라면 저 높은 곳 위에 있는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등대 꼭대기에 다 올라가기 전에 보통 땀이 흘러 내렸다. 양동이는 각각 50 파운드는 족히 되어 보였다. 아버지가 철심 손잡이에 패드를 덧대었지만 존은 손바닥은 이미 다 까지고 혈어 현재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는 이미 10파운드 빠져서 계속된다면 건강상 위험해 질 수 있다.

존의 아버지는 나서서 존을 등에 업고 존을 해변만으로 데리고 가 근처 소형 어선에 줄을 묶어 존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등대 플랫폼까지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나 존은 두 계획 모두 위험부담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링 우가 텔레파시 보내는 곳으로 오던 중 그의 아버지를 본다면 다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존은 매일같이 링 우에게 사정했다. 제발 해변만 바위든, 등대든, 아니면 링 우가 괜찮다고 고른 어느 장소든 돌아와만 달라고 빌었다. 그 동안 연안 경비대 정찰 선박이 러시아인들이 존을 납치해가지 못하도록 24시간 해변만 주변을 순찰했다. 낮에는 존의 아버지도 망원경으로 존을 계속 지켜보았다.

마침내, 33일째 되는 날, 존은 그를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소형어선 옆 바위 위 바로 예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링 우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색은 분노로 붉으락푸르락 했다. 그의 옷차림은 바뀌어 있었다. 그의 가운은 반짝이는 녹색이었고, 코랄 빛 검정 바지, 은색의 신발을 신고 있었고 머리에는 여전히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 머저리 같은 이단아야. 널 팔아넘겨 버릴 거야. 소 등에 있는……”

“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링 우 마술사님? 제가 한 달 넘게 계속 불렀잖아요.”

“내가 어디 있었는지는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제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술사님.”

“나도 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 나는 네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너는 연습도 없이 그 고기잡이 배 위를 날아다니며 네 뇌세포를 화나게 했지. 내가 경고했잖니 조심하라고.”

“잘못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지.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어겼어. 이제 용의 담즙에 빠지고, 불타는 지푸라기를 코에 넣고, 상어의 등판에 매달릴 준비가 되었겠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존이 놀라 소리쳤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마술사님. 저를 용의 담즙 빠뜨려 끊이지 마세요. 달나라로 못 날아가도록 평생을 무게 추를 달고 살아가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 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빼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맥스 말고는 친구도 없었던 말이에요. 저는 이 바위섬에 붙잡혀 사는 것 같았어요.”

링 우는 서쪽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술사님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진짜 외로움이요.”

링 우는 북쪽 샌프란시스코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웃기게 생긴 망원경을 끼고 등대와 존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흠…….”

“제발요. 마술사님. 5천년 치유법을 안다고 말하는 나이 많은 마술사가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슈 밉?” 링 우가 가소롭다는 듯 말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쥐빨도 아는 게 없어! 슈 밉이 가장 잘하는 거라곤 손수건을 비둘기로 바꾸는 것뿐이야.”

존은 슈 밉이 뭘 제일 잘하는지 관심 없었고 그는 부크테헤데 박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뇌세포를 조절하기 위해 존의 두개골을 여는 것에 관심 없었다.

“제발요, 제발, 오 위대하고 위대하신 마술사님, 저는 다시는 날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운의 색깔과 같은 녹색 눈을 가진 마술사는 존의 영혼을 뚫어지게 보았다.

“이것은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이 하찮은 똥강아지 녀석아.



이건 내가 나에게 맹세하고 깨버린 언약의 문제야. 나를 따라 해봐 : 나, 존 제퍼스는 다시는 링 우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 침묵의 맹약을 지키겠습니다.”

존은 마치 천상의 법원에서 맹세하는 것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었다. 트럼펫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가만큼 경건하게,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 조아리는 예법 같은 진실함을 담아, 존은 한자 한자 따라 했다.: “저 존 제퍼스는, 다시는 링 우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 침묵의 맹약을 지키겠습니다.”

링 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존은 기다렸다가 말했다. “이게 다예요? 전 이제 공중부양을 멈출 수 있나요?”

“아니, 이 불쌍한 중생아, 너는 아직은 공중부양을 멈출 수 없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 전을 떠올려 봐”

“뭘 떠올려요?”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보라고.”

필사적으로 존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자신에게 한 말을 더듬어봤다. 솟아오르다 라든가 공중부양이라든가 때, 별새라든가, 또-

“연” 존은 소리쳤다.

“이제, 쓸모없는 꼬마야, 이제야 ‘뇌’ 라는 걸 사용하는구나.” 링 우는 말했다.

“그런데 전 이제 뭘 하면 되죠?”

“연은 가지고 있지만 너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줄!”

링 우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너의 줄은 뭘까? 이 철없는 개구리야?”

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처음 공중부양 하는 법을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연을 붙잡아주는 줄처럼 자신을 땅에 붙잡아 주는 게 뭘까?

그 해답은 쉬웠다. : 그것은 당연히 가족이었다.

그는 계속 열심히 집중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는 머릿속에 똑딱거리는 소리, 뽀드득 소리, 삐걱삐걱 소리들이 들렸고, 마침내 평화의 음악 소리가 흘러 나왔다.

“눈을 감아라, 이 이단 꼬마야, 이제 영원히 안녕이다.” 링 우는 말했다.

존은 시키는 대로 했고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존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다. 링 우가 사라졌다. 존은 서쪽을 향해 바라봤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반짝이는 녹색 가운이 사라지고 있었다.

“마술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존은 부드럽게 외쳤다.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페인트 통을 던져버리고 스맥스를 향해 소리쳤다. 스맥스는 54걸음 후다닥 도망쳤다가 어느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짖으며 다시 존에게 후다닥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땅을 단단히 밟고 심장이 지상에 단단히 연결된 존은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따라 집으로 향해 갔다.

테오도르 타일러의 또 다른 극찬 받은 이야기

## 말도나도의 기적

~

한 작은 마을이 큰 기적을 경험하다.

12살의 조제 말도나도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를 꿈꿨었다. 그러나 가난한 멕시코 농부의 아들인 그는 예술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집중해야 했다. 존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고 존스 혼자서 멕시코에 남겨졌다. 아버지와 조제가 다시 만나는 날에, 상황은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국경선을 넘으려는 조제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주 노동자 캠프에서 머무르던 시간은 악몽으로 변화였고 그는 살기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몸을 숨긴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조제의 어깨 상처부위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 조각상에 떨어지며 상황은 틀어진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 상 그자체가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제의 우연히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장식했고, 마을 전체의 미래를 위협했다.

사랑, 희망, 구원의 힘에 대해 테오도르 타일러의 단호한 관점은 ‘말도나도의 기적’이라는 영화에 영감을 주었고, 이 영화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주요 비평가의 찬사를 받았다.

테오도르 타일러의 출간을 앞둔 또 다른 책

## 빙하 표류기 오싹한 생존 이야기

때는 1868년, 14살 알리카와 그의 남동생 술루는 북극해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에 붙어있는 빙하 위에서 바다표범을 사냥하고 있었다. 갑자기 얼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형제는 커다란 금가는 소리를 듣는데 이것은 섬에서 빙하가 떨어져 나오는 끔찍한 소리다. 형제는 빙하와 섬의 해안가 사이의 캄캄한 수면의 거리가 갑자기 넓어지는 것을 두려움에 휩싸인 채 지켜본다. 그리고 형제는 자신들의 집, 가족,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서쪽으로 표류를 시작한다.

장장 6개월간의 그린란드 해협을 따라간 긴 여행 내내, 이 형제는 매서운 추위와 배고픔, 그 중에서도 압권인 포악한 북극곰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의 스틸 넘치는 모험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는 형제 사이의 우애에 관한 감동적이 증거이자 인간정신의 강인함의 증거이기도 하다.

## 옮긴이의 말

번역을 처음 해보는 햇병아리 번역가에게 이 책 ‘하늘을 나는 소년’은 하나의 도전이었고 행운이었다. 번역을 하면서 자신이 재밌게 읽은 책을 번역할 기회가 좀처럼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현실이다. 번역물이 주어지는 대로, 클라이언트의 요구대로 따라야 하는 일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논문을 통해서나마 내가 스스로 책을 선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던 한 권의 책을, 내 힘으로 번역하고 마지막 과정에 이르러 이렇게 번역 후기를 쓴다는 것은 보람을 넘어선 감동적인 일이다.

‘하늘을 나는 소년’은 초 중등 학생들이 가볍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외딴 섬에서 혼자 놀던 존이라는 소년은 유령을 만나 너세포를 이용해 하늘을 나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 후 유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먼 곳까지 날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체를 들켜 결국 전 세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이다. 스토리에서 알 수 있듯이 유령과 하늘을 난다는 설정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의 상황과 배경이 제시된다. 이처럼 판타지와 현실성이 적절히 버무려진 것이 이 책을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만들었다.

어린 시절 누구나 꿈꾸어보았을 법한 하늘을 나는 상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의 일을 그려내고 있다.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던 그 일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가족의 사랑은 독자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가져 올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부족한 실력으로 책 한 권을 무사히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박경란 교수님, 김재원 교수님, 김원보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이 막막하여 첫 줄을 적는데도 한참을 망설였던 나에게 교수님들의 격려와 조언은 이 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큰 힘이였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좌절하고 용기 냈던 제주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16기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내가 대학원에 입학하고 내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해준 나의 엄마,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깊은 사랑의 말을 전한다.

한 소년의 꿈이 국가의 재앙이 된다.

존 제퍼스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9살 소년이다.

1935년, 그는 샌프란시스코 연안에서 떨어진 한 작은 바위섬에서 어머니와 등대지기 아버지와 셋이서 산다. 존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한다. 만약 그가 이 외딴 바위들만 가득한 섬을 떠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모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신경질적인 고대 마술사 유령이 해변가에 나타나 놀랍게도 존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준다. 처음에는 하늘을 나는 것이 존의 광대한 꿈에 대한 해답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비행은 곧 심각한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데.....

“빠른 전개..... 훌륭한 책”

- 어린이 문학

“눈을 땔 수 없는 판타지”

- 학부모회

“재미있다.”

-북리스트



